

教育學碩士 學位論文
울산국어교육 연구 제91집

김상헌의 『남사록』 연구

2007年

蔚山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王 劭 銘

김상헌의 『남사록』 연구

指導教授 成 範 重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8月

蔚山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王 劭 銘

王劭銘의 教育學碩士 (國語教育)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유 필 재 (印)

審査委員 이 은 섭 (印)

審査委員 성 범 중 (印)

蔚山大學校 教育大學院

2007年 6月

<국문초록>

본고는 1601년 안무어사로서 제주를 다녀온 김상헌(1570~1652)이 쓴 『남사록』을 대상으로 그 제작 배경과 경위를 살펴보고, 기행문학적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남사록』에 나타나는 안무어사로서의 공식적인 입장과 시인으로서의 개인적 감회를 동시에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남사록』은 제주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어, 작품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제작 배경과 경위를 살펴보았다.

둘째, 『남사록』에 나타난 기행문학적 성격을 살펴보면서 아울러 서정의 세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남사록』은 운문과 산문의 혼합적 서술양식을 통해 청음의 견문과 감회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다. 산문을 통해서 여정과 견문을, 운문을 통해서 여행 중의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즉, 제주 노정을 바탕으로 청음이 접한 자연경관이나 풍물·풍속 등을 읊고 있는 점에서 기행문학의 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기행문학적 성격을 살펴보면서 안무어사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를 여행했던 청음의 공식적인 일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또한 청음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한시에 나타난 서정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청음이 신비하게 느끼고 있는 제주의 자연 경관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이국적으로 느낀 제주의 풍물과 풍속 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지 살펴보았으며, 청음이 느꼈던 객회와 향수를 문학적으로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이상의 모든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남사록』의 문학적 특성과 문학사적 의의를 논의하였다.

<목 차>

<국문 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2. 연구사 검토	2
3. 연구 자료 및 방법	5
II. 『남사록』의 제작 배경과 경위	7
1. 여행의 계기	7
2. 『남사록』의 제작 경위	9
III. 『남사록』의 기행문학적 성격과 서정의 세계	14
1. 기행문학적 성격	14
2. 한시에 나타난 서정	16
2.1. 신비한 자연 경관	19
2.2. 이국적 풍물과 풍속	27
2.2.1. 이국적 풍물	28
2.2.2. 이색적 풍속	33
2.3. 객회와 향수	37
IV. 『남사록』의 문학적 특성과 문학사적 의의	47
1. 『남사록』의 문학적 특성	47
2. 『남사록』의 문학사적 의의	50
V. 결론	54
【참고문헌】	57
<영문 초록>	

<표 목 차>

< 표 1 > 편명별 내용	12
< 표 2 > 편명별 인용자료	12
< 표 3 > 어사로서의 공적 일정	14
< 표 4 > 청음의 자작 한시 목록	16
< 표 5 > 인용 한시 목록	18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고는 1601년 按撫御史로서 濟州를 다녀온 金尙憲(1570~1652)이 쓴 『南槎錄』을 대상으로 그 제작 배경과 경위를 살펴보고, 기행문학적 성격을 드러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의 안무어사로서의 일정이 공식적이고 통상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청음의 독자성이나 개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공식적인 일정을 기술한 산문적 기술과는 별도로, 특정한 지역이나 대상에서 드러나는 개인적 감회를 다룬 한시의 세계를 아울러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사록에 나타나는 안무어사로서의 공식적인 입장과 시인으로서의 개인적 감회를 동시에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대상인 『淸陰遺集』¹⁾에 수록된 『남사록』은 제주의 見聞·吟咏, 風土·物産·形勝·民情·風俗·古蹟·港口·軍備·弊瘼·建設物, 그리고 進貢과 軍役으로 인한 民苦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²⁾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³⁾

김상헌은 선조 3년(1570) 6월 3일에 漢陽에서 태어났고, 자는 叔度이며 호는 淸陰이다. 그의 조부는 郡守 生海이고, 父는 敦寧府都正 克孝이며, 母는 左議政 鄭惟吉의 따님이다. 그는 선조 20년 18세 때 진사 초시에, 20세 때 다시 진사 초시에, 이듬해 가을에 진사 2등으로 합격하였다. 선조 29년(1596) 겨울에 정시 병과 8등으로 합격하여 權知承文院正子에 임명되니, 이로써 벼슬길이 시작되었다. 청음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시문과 朝天錄·南槎錄·淸平錄·雪窟集·南漢紀略 등으로 구성된 『청음유집』 40권이 전해지고 있다.⁴⁾

청음은 文士 가정의 영향과 청년기 이후 스승 月汀⁵⁾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문장력을 키울 수 있었다.⁶⁾ 정조는 “그의 문장은 韓愈·會鞏이요, 그의 학문은 濂洛이다. 바른 도학과 높은 절의를 우리나라에서 존경할 뿐만 아니라 청나라 사람들도 공경하고 복종하였으니 문장은 그 뿐이다.”⁷⁾라고 하면서 칭찬하였다.

1) 『淸陰遺集』에는 「南漢紀略」, 「雪窟集拾遺」 등과 함께 「南槎錄」이 筆寫本으로 수록되어 있다.

2) 하진규, 「청음 김상헌의 생애와 문학」,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2.

3) 임홍선, 「김상헌의 남사록」, 『논문집』 제23집, 제주교육대학교, 1994.

4) 이현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v.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712.

5) 尹根壽(1537~1616).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海平, 자는 子固, 호는 月汀이다.

6) 『淸陰集』에 의하면, 학문의 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9살에 처음 가정에서 배우고, 외조부를 섬겨 가르침을 받았고, 伯氏 仙源先生과 堂兄 休庵先生에게서 가르침을 더하여 점점 학문의 방향을 알게 되었다. 16살에 윤문경공을 뵈고 가르침을 청하였다.”

7) 正祖, 『(국역)홍재전서』 17권, 민족문화추진회, 1998.

“金淸陰道學之正, 節義之高, 不獨我國之所尊慕, 仰亦清人之敬服, 則文章特其餘事耳, 予於稱道時, 不曰故相曰先正者, 此也, 向來致祭文中, 其文韓會, 其學濂洛云者, 指道學文章也, 東海之水, 西山之薇, 拳以酌卿, 淸

중국의 翰林院侍讀士 李康先도 그의 성품은 도량이 넓고, 거만하거나 방자하지 않아 두보, 이백, 도연명 등의 우수한 점을 구비했고, 그들의 결점까지 보완했다⁸⁾고 극찬하였다.

본고는 탁월한 문장으로 역사적·자료적 가치를 지닌 제주 기행문인 『남사록』에 수록된 한시의 세계를 살펴봄으로써 『남사록』의 문학적 특성과 이 책이 제주 기행문학 속에 차지하는 문학적 의의를 규명할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한국의 한문학사에서 청음은 斥和論을 주장하여 유배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절의와 충절을 지닌 충신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그의 詩文이 중국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탁월한 文章家로 이해되고 있다.⁹⁾

청음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대체로 사상적인 측면¹⁰⁾과 문학적인 측면¹¹⁾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이 중 문학적인 측면의 연구는 하진규¹²⁾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청음의 생애를 出任·失意·得意·安東 隱居·瀋陽 流配期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官人文學의 관점에서 문학 내용의 변이과정을 고찰하였다.

김경미¹³⁾는 『淸陰集』에 수록된 전체 한시의 세계를 卽景詠物, 思鄉客愁, 懷古回想, 田園歸依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¹⁴⁾

조명주¹⁵⁾와 황인건¹⁶⁾은 청음의 瀋陽抑留 시기에 제작된 『雪窟集』에 실려 있는

標是似云者, 指節義也.”

8) 『淸陰集』序文, “境有朝鮮使君金, 偶出其所著朝天錄閱之, 識趣高邁, 襟性寥廓, 有工部之深思, 而不溼於排鬱有謫仙之瀟灑, 而不流於狂肆, 有五柳之澹蕩, 而不淪於寂寞.”

9) 조명주, 「『설교창집』을 통해 본 청음 김상헌의 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8.

10) 박세한, 「김상헌과 최명길의 철학사상과 역사의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9.

오수창, 「최명길과 김상헌」, 『역사비평』 제1집, 역사문제연구소, 1998.

지두환, 「청음 김상헌의 생애와 사상」, 『한국학논총』 제24권,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1.

11) 하진규, 앞의 논문, 1982.

최두식, 「『남사록』 소재시의 해양소재연구」, 『석당논총』 제18집,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원, 1992.

임홍선, 앞의 논문, 1982.

윤승준, 「청음 김상헌의 “관동별곡 번사”에 대하여」, 『한문학논집』 제12집, 단국한문학회, 1994.

박준호, 「제주도와 관련된 기행록 및 유기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제7집, 대동한문학회, 1995.

김경미, 「청음 김상헌 시 연구」, 『연세어문학』 제21집, 연세어문학회, 1988.

조명주, 앞의 논문, 1998.

황인건, 「병란 직후 지식인의 시적 대응-청음 김상헌의 『설교집』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6집, 한국시가학회, 2000.

이상순,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5.

성범중, 「청음 김상헌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제9권, 한국한시학회, 2005.

12) 하진규, 위의 논문, 1982.

13) 김경미, 앞의 논문, 1988.

14) 조명주, 앞의 논문, 1988.

15) 위의 논문.

16) 황인건, 앞의 논문, 2000.

한시만을 대상으로, 전자는 유배객의 고독과 애상, 옥중에서의 회한과 통분, 사향과 회친의 비감, 충절과 저항의 비울로 구분하여 시세계를, 후자는 병란 직후 한 지식인의 시적 대응 양상을 대략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윤승준¹⁷⁾은 청음의 작품 중 송강 정철의 『關東別曲』을 한역한 『關東別曲 翻詞』를 대상으로 하여 원본을 비교해보고 한역상의 특징 및 문학적 가치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청음이지만 『남사록』을 제외한 연구는 다양한 작품 및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청음의 작품 중 본 연구의 대상인 『남사록』은 왕명을 통해 안무어사로서 제주를 견문하여 기록한 것으로, 성격상 기행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한국의 기행문학은 목적에 따라서 使臣行次의 일행으로 중국이나 일본 등을 다녀와서 쓴 使行記¹⁸⁾, 죄를 짓고 征配되어 어느 지역에 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流配記, 산천 구경을 위하여 여러 곳을 다녀와서 지은 觀遊記,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되어 쓴 漂海記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⁹⁾ 이렇게 나눈 것을 견문의 공간적 배경에 따라 국외와 국내로 구분할 수 있어, 그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수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기행문학 전반에 대한 고찰²⁰⁾은 최강현의 논의를 시작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의는 시기적으로 조선 시대 말엽까지, 형식적으로 기행가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작품에 반영된 선조들의 여행 동기를 분석하여 사행기·유배기·관유기·표해기 등의 유형별로 정리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17) 윤승준, 앞의 논문, 1994.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CD, 동방미디어, 2003.

현재 전하고 있는 사행기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중국행계 사행기이고, 하나는 일본행계 사행기이다. 중국행계 사행기는 다시 명나라 때 중국을 다녀와서 지은 것들은 대체로 ‘朝天錄’이라고 하며, 淸나라 때에 다녀온 기록들은 대개 ‘燕行錄’이라고 부른다.

일본행계의 사행기록들은 대체로 그 글의 제목들이 ‘東槎錄’ 또는 ‘海槎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바다로 건너 다녀왔다는 뜻이다.

19) 최강현, 「한국 기행 문학 소고」, 『어문논집』 제19집, 안암어문학회, 1977.

20) 위의 논문.

최강현, 「한국 기행문학 소고Ⅱ」, 『새국어교육』 제31집, 한국국어교육학회, 1980.

김용섭, 「기행가사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0.

최강현, 「한국 기행문학 연구-주로 조선시대 기행가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81.

오관석, 「한문기행연구-장한철의 『표해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4.

함은희, 「조선시대 기행가사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9.

최병영, 「18세기 기행가사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0.

권인호, 「한국 기행가사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0.

장석우, 「한문기행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5.

정기철, 「기행가사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6.

——, 「기행가사의 개념과 유형분류」, 『한남어문학』 제21집,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6.

최강현, 『한국 기행문학 작품 연구』, 국학자료원, 1996.

——, 『한국 기행가사 연구』, 신성출판사, 2000.

이후의 논의는 기행문학의 전반에 대한 고찰보다는 기행가사와 표해록 등 한정된 양식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기행문학 전반에 걸친 고찰이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의 기행문학 중 제주도를 견문하고 쓴 기록 또한 유배기²¹⁾, 관유기²²⁾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유배기로는 제주 최초의 풍토지로, 기후 및 지리적 환경, 풍물과 습성, 언어와 사회상, 토산물과 특산물, 유배지의 환경과 정신적 상황 등을 자세히 읊은 冲菴 金淨의 『濟州風土錄』²³⁾, 8년의 긴 세월동안 유배된 처지에서 견문한 17세기 제주의 풍토 및 제 상황을 담고 있는²⁴⁾ 葵窓 李健의 『濟州風土記』²⁵⁾, 제주 유배기간에 지은 詩文을 수록해 놓은 北軒 金春澤의 『囚海錄』²⁶⁾ 등의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관유기로는 제주목사인 부친 林晉을 만나 뵈기 위해 갔던 제주에서의 여러 가지 체험을 읊은 白湖 林悌의 『南溟小乘』²⁷⁾, 안무어사로 제주에 파견되어 견문한 것을 기록한 淸陰 金尙憲의 『南槎錄』, 제주목사로 임명되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갔던 제주를 견문한 기록인 凝窩 李源祚의 『耽羅錄』²⁸⁾, 金吾郎으로 제주에 입도하여 견문을 기록한 石北 申光洙의 『耽羅錄』²⁹⁾ 등의 연구가 양에 있어는 적지만 진행되어 왔는데, 이 외 나머지 작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제주도를 공간적 배경으로 한 기행문학 중 본 연구의 대상인 『남사록』에

21) 충암 김정 의 『제주풍토록』, 규창 이건의 『제주풍토기』, 동계 정은의 『대정현동문내원잡기』, 목재 신명규 의 『목재기문록』, 북헌 김춘택의 『수해록』, 서재 임미하의 『남천록』, 조정철의 『정현영해처감록』 등이 있다.

22) 최강현, 『한국기행문학연구』, 일지사, 1982, 161면.

관유기를 나라 안의 산천을 구경하고서 저술한 기행문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임제의 『남명소승』은 관유기에 해당한다. 특히 이 책에서 제주를 여행하고 지은 관유기로 청음 김상현의 『남사록』을 들고 있어, 『남사록』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관리로 파견되어 제주를 기행 했던 병와 이형상의 『남환박물지』, 석복 영광수의 『탐라록』, 응와 이원조의 『탐라록』, 태호 이원진의 『탐라지』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23) 홍정표, 「충암 김정의 『제주풍토록』 소고」, 『교육제주』 제28집, 제주도교육위원회, 1975.

양순필, 「충암의 『제주풍토록』 소고」, 『어문논집』 제22집, 안암어문학회, 1981.

박준호, 앞의 논문, 1995.

김상조, 「충암 김정의 『제주풍토록』과 규창 이건의 『제주풍토기』비교 연구」, 『대동한문학』 제13집, 대동한문학회, 2000.

24) 박준호, 위의 논문, 1995.

25) 양순필, 「이건의 『제주풍토기』소고」, 『어문논집』 제21집, 안암어문학회, 1980.

박준호, 위의 논문, 1995.

김상조, 앞의 논문, 2000.

26) 소재영, 「북헌의 『수해록』논고」, 『건국어문학』 제19집,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5.

부수상, 「북헌 김춘택 『수해록』의 일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27) 소재영, 「임제의 『남명소승』고」, 『어문연구』 제3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75.

윤치부, 「임백호의 『남명소승』고」, 『탐라문화』 제7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박준호, 앞의 논문, 1995.

28) 위의 논문.

29) 윤경주, 「신석복의 『탐라록』고」, 『성대문학』 제23집,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4.

대한 연구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최두식³⁰⁾은 『남사록』을 항해기록문으로 분류하고 『남사록』 소재 한시의 고찰을 통해 해양문학의 이해와 기초를 정립하였다. 임홍선³¹⁾은 간략하게 『남사록』의 주요 내용 및 작품 속에 비친 작자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박준호³²⁾는 제주도와 관련된 6종의 한문 기행록 및 유기의 대략적인 내용을 저작연대순으로 살펴보면 『남사록』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이상순³³⁾은 『남사록』에 기록된 당시 제주의 사회현실을 파악하고 작품의 특징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였으나 『남사록』 소재 한시의 세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성범중³⁴⁾은 청음의 생애에서 드러나는 특별한 경험을 현존하는 그의 책과 관련시켜서 네 범주, ‘濟州安撫御史 경험과 『南槎錄』’, ‘中國使行 경험과 『朝天錄』’, ‘淸平山紀行 경험과 『淸平錄』’, ‘瀋陽抑留 체험과 『雪窠集』(『雪窠酬唱集』)·『雪窠後集』·『雪窠別集』’으로 나누어 청음의 한시 세계를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청음이 저술한 다양한 작품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의 생애에서 드러나는 특수한 경험과 관련지어 『남사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이전 연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청음에 대한 연구가 사상적인 측면보다 문학적 측면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경험별 고찰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본고의 연구대상인 『남사록』 연구는 다른 작품에 비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작품 자체의 의미 구명에만 치중되어 있어 여행 도중에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한시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 연구 성과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고는 기행문학으로서 『남사록』을 다루는 동시에 거기에 실린 한시의 의미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다.

3. 연구 자료 및 방법

본고는 『淸陰遺集』에 수록되어 있는 『남사록』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남사록』은 김상헌의 현존 대표 작품인 『淸陰集』³⁵⁾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따로 간

30) 최두식, 앞의 논문, 1992.

31) 임홍선, 앞의 논문, 1994.

32) 박준호, 앞의 논문, 1995.

33) 이상순, 앞의 논문, 2005.

34) 성범중, 앞의 논문, 2005.

35) 본집은 40권 16책이다. 맨 앞에 1627년(인조 5)에 聖節兼謝恩陳奏使로 북경에 갔을 때 禮部侍郎 李康先, 濟南 黃山居士 張延登에게 사행 도중 지은 시를 모은 朝天錄을 보여 주고받은 序文이 차례로 실려 있다. 그 뒤에 目錄, 淸陰草稿自跋가 있다.

행되어, 후에 『淸陰遺集』에 실리게 되었다. 『淸陰遺集』에는 필사본이 실려 있는데, 현재 原本은 일본 나라시 天理大學校附屬 天理圖書館 今西龍文庫에 소장되어 있다.³⁶⁾

『남사록』은 「序」를 비롯하여 「南程」「候風」「渡海」「風物」「山祭」「明倫觀德」「査點」「咨問弊瘼」「朝天館」「歸颿」과 같은 篇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登場人物」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기와 시, 잡문(제문, 교서 등 포함)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양식의 글이 혼재되어 있다.

본고는 『南槎錄』을 대상으로 그 제작 배경과 경위를 살펴보고, 안무어사로서의 공식적인 입장과 시인으로서의 개인적 감회를 동시에 고찰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남사록』에 대한 제작의 배경과 경위를 살펴보면서 여행의 계기와 일정, 작품 자체의 성격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남사록』이 지니는 기행문학적 성격을 고찰해본다.

다음으로 청음의 주관적 견해를 표출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남사록』 소재 한시의 세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우선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대한 감상을 한시를 통해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제주 풍물과 풍속을 접하고 이를 어떻게 느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청음이 왕명을 받아 처음으로 절해고도의 땅인 제주를 가게 된 데에서 느끼는 감회, 즉 나그네로서의 다양한 심정을 어떻게 한시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끝으로, 이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남사록』이 가지는 문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며, 제주 기행문학 속에 차지하는 『남사록』의 문학사적 의의를 논해 보겠다.

권1~8은 詩 1천여 수이다. 五言과 七言의 절구, 율시, 배율, 고시, 六言, 歌曲의 詩體別 분류를 하고, 各體 안에서는 대체로 연대순 편차를 하였다. 권9는 朝天錄으로, 1626년 聖節兼謝恩陳奏使로 北京에 다녀올 때 지은 詩文을 모아 놓은 것이다. 권10은 淸平錄이다. 1635년 3월에 春川의 淸平山을 유람할 때의 시문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8일부터 14일까지 그날그날의 旅程과 지은 詩를 함께 적어 놓았다.

권11~13은 雪窟集, 雪窟後集, 雪窟別集이다. 1640년 11월 瀋陽으로 가서 1645년 2월까지 그곳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지은 詩文을 모아 놓은 것이다. 권14는 表箋, 教書, 上樞文, 冊文이며, 권17~22는 疏箚이다. 권24~37은 墓道文字로, 권24~29는 碑銘 33편으로, 徐洙, 朴東亮, 李廷龜, 洪命壽, 金尙容, 鄭惟吉, 成渾, 李安訥 등에 대한 것이다. 권30~32는 墓碣銘 37편으로, 李春元, 趙廷機, 宋甲祚, 吳允謙, 申應渠 등에 대한 것이다. 권33~35는 墓誌銘 28편으로, 李義健, 趙存性, 金長生, 李晬光, 權春蘭, 金尙窩 등에 대한 것이다. 권36은 墓表陰記 15편으로, 부친 金大孝, 형 金尙寬과 金尙寔, 모친 李氏와 鄭氏 등에 대한 것이다. 권37은 行狀 6편으로, 생부 金克孝, 생모 東萊鄭氏, 스승 尹根壽 등에 대한 것이다. 권38~39는 記, 序, 題跋, 雜著이며, 권40은 書牘 45편으로, 저자의 명성에 비하여 매우 적은 분량이다. 이 부분은 저자의 自編이 아니라 후에 뽑아 넣은 것으로 草本을 잃어버린 것이 많아 이렇게 되었다. 편차는 1617년 朴東亮에게 준 편지부터 1651년 鄭廣成에게 답한 편지까지 연대순으로 되어 있다.

36) 이상순, 앞의 논문, 2005, 6면.

II. 『남사록』의 제작 배경과 경위

『남사록』은 1601년 음력 8월 14일에서 이듬해 2월 14일 복명하기까지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다. 여기서 기록된 내용은 모두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내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제작 경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이에 청음이 제주도에 가게 ·된 계기와 제주도에서의 일정을 먼저 살펴본 후, 『남사록』의 제작 배경과 성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여행의 계기

『남사록』은 淸陰 金尙憲이 저술한 제주 기행문으로, 1601년 음력 8월 14일에서 이듬해 2월 14일 복명하기까지 직접 체험한 사실을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청음이 제주로 떠나게 된 계기는 「南程」의 첫머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濟州牧使, 成允文이 馳啓하였다.

善山사람 吉雲節이 益山사람 蘇德裕, 海南의 중 惠修등과 더불어 濟州에 들어와서 몰래 土民인 文忠基, 洪敬源등 十餘명을 유혹하여 牧使이하 三邑의 守丞을 죽이고 濟州전체가 叛하기를 謀議하였다. 장차 날짜를 약속하여 舉事하려는데 마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謀議가 누설되어 雲節은 自首하였고 德裕, 忠基등 二十명을 잡아 서울로 械送하였다.

法廷에서 조사하여 죄가 인정되는 者는 모두 法에 따라 刑罰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 連累되어 법을 위반한 者들은 모두 용서하고 不問에 붙였다. 廟堂에서는 혹시 海外에 멀리 있는 백성이 위협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복종한 자는 죄주지 않는다는 조정의 뜻을 모르고 모두 不安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과 또한 守丞으로써 適任이 아닌 사람을 여러 차례 꺾어 民間의 괴로움이 있으나 스스로 빠져 나갈 길이 없음을 깊이 염려하여 御史를 보내어 가서 德音을 퍼고 겸하여 病弊를 올바르게 하기를 請하였다.

吏曹에서는 처음에 弘文館 校理 尹義立을 보내려 했으나 上監께서 義立은 지방 罪人の 조사를 담당케 된 것을 郎廳도 모두 자세히 아는데 어쨌든지 御史는 成均館 典籍 金尙憲을 보내는 것으로 하고 變動이 없도록 하라 하시었다. 이 해 八月一日이었다.³⁷⁾

37) 『南槎錄』, 1601년 7월,

“濟州牧使成允文, 馳啓, 善山人吉雲節, 與益山人蘇德裕, 海南僧惠修等, 入來本州, 潛誘土民文忠基, 洪敬

청음이 파견될 당시 국내 정세는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극심한 혼란기였으며, 제주도는 관리들의 횡포가 극심하여 민심이 동요되어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1601년 吉雲節이라는 자가 몰래 제주에 들어가 島民들을 꾀어 반란을 모의하다 발각되었다. 이들 주모자를 비롯 20여명의 연루자가 서울로 압송되고 그 중 일부는 처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임금의 뜻은 조사하여 죄가 인정되는 者는 모두 法에 따라 刑罰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 連累되어 법을 위반한 者들은 모두 용서하고 不問에 붙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廟堂에서는 혹시 海外에 멀리 있는 백성이 위협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복종한 자는 죄주지 않는다는 조정의 뜻을 모르고 모두 不安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과 또한 守令으로써 適任이 아닌 사람을 여러 차례 꺾어 民間의 괴로움이 있으나 스스로 빠져 나갈 길이 없음을 깊이 염려하였다.

이에 선조 34년(1601)에 제주도민의 안무를 위하여 成均館 典籍 김상헌을 어사로 파견하게 되었다. 처음에 弘文館 敎理 윤의립을 보내려 했으나, 청음이 이전에 吏曹 堂下官으로 있을 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적격이라 여겼을 것이다.³⁸⁾

이와 같은 내용은 “김상헌을 제주 안무어사로 삼았다. 김상헌은 전에 전랑으로 있을 때 의논에 변별함이 많아 그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상이 특별히 김상헌을 명하여 보낸 것이다”라고 하는 『朝鮮王朝實錄』 선조 34년 8월 1일(丙寅)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³⁹⁾

이때 청음에게 주어진 사명은 제주도민에 대한 敎書의 선포와 한라산 신에 대한 致祭, 그리고 비변사에서 마련한 17條의 事目이 있었다.⁴⁰⁾

- 一. 前職 및 現職守令의 賢明한지의 여부. 모두 訪問하고 문서로 보고할 것.
- 二. 本州에 간하여 있는 罪人을 조사하여 문서로 보고하고 朝廷의 조치를 기다릴 것. 그중 죄에 간여하지 않은 者는 곧 풀어 주도록 할 것.
- 三. 각 衙門에 파견된 관리가 公事를 빙자하여 私利를 도모하는 者를 적발하여 못하도록 할 것.
- 四. 守令이 사사로이 雜物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활과 화살을 만드는데 專念

源等十餘人，謀殺牧使以下三邑守令，舉州以叛，將約日舉事，適事未就謀洩，雲節自首，遂收德裕忠基等二十輩，械送京城。庭鞫得情者，咸施典刑，其餘株連反側者，竝赦不問，廟堂深慮，海外遐氓，或未如朝廷罔治脅從之意，皆懷不自安之心，且以守令屢經匪人，民間疾苦無路自達，請遣御史，往布德音兼詢弊瘼。吏曹初以弘文館校理尹義立擬差，自上以義立方爲推鞫問事，郎廳詳知首末，姑仍勿改，御史則成均館典籍金尙憲差遣。是年八月初一日也。”

38) 『宣祖實錄』, 선조 34년 8월 丙寅 참조.

39) 위와 같음.

40) 이상순, 앞의 논문, 2005, 31면.

토록 할 것.

- 五. 山城의 形勢와 民情이 便한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문서로 보고할 것.
- 六. 本州의 待變船(비상시에 대비한 선박)의 增減이 가능한지의 여부.
- 七. 國馬의 數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
- 八. 목동의 戶數 및 非理가 없는지 알아보고 보고할 것.
- 九. 本州人으로 內地에 들어온 者가 있는지 戶籍과 대조하여 조사할 것.
- 十. 定配된 罪人の 現存하는 數를 확인하여 보고할 것.
- 十一. 三邑의 軍人の 수효, 그 戶口數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고할 것.
- 十二. 三邑의 軍器, 軍糧, 城池, 器械, 格軍을 조사하고 살펴볼 것.
- 十三. 本州出身의 禁軍과 士兵의 재주를 시험해 보고 보고할 것.
- 十四. 本州儒生의 講과 製述시험을 보아 합격시키고 보고할 것.
- 十五. 黃魚川의 伏兵이 나무에 불 질러 報變하는 것을 다시 設置하는 것이 좋은 지 어떤지를 살펴보고 보고할 것.
- 十六. 本島의 官屬과 人民의 工役에 대하여 분명하게 원칙(법)을 정할 것.
- 十七. 守令에 대하여는 通政이상(당상관)은 報告한 후 治罪하고 通訓이하(당하관)는 棍杖 八十대까지 스스로 斷罪하고 監色의 잘못을 조사하여 治罪할 것.⁴¹⁾

사목의 주된 내용은 임홍선의 논문에서 “전·현직 守令이 현명한지의 여부 조사, 公事를 빙자하여 私利를 도모하는 것을 적발 및 금지, 國馬와 牧子の 실태 조사, 방어시설 및 군비의 실태 조사, 本州 군인과 유생의 시험 선발, 민정 시찰, 工役에 대한 분명한 원칙 수립, 戶口 실태 조사 등”⁴²⁾으로 요약·정리되고 있다.

2. 『남사록』의 제작 경위

청음은 蘇德裕·吉雲節 모의 사건으로 인해 안무어사로 제주도에 파견되어 수행하였던 공적인 임무를 염두에 두고 1601년 음력 8월 14일에서 이듬해 2월 14일 복명하기까지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사록』이라는 일기체 형식의 기

41) 『南槎錄』, 1601년 8월 10일 乙亥.

“一, 會經今現在守令賢否, 竝訪問啓聞事. 二, 本州被囚罪人推覈啓聞, 以待朝廷處置, 其中略不干涉者, 直爲疏放事. 三, 各衙門差官, 憑公營私者, 摘發禁斷. 四, 禁斷守令私造雜物, 專意造作弓箭. 五, 山城形勢, 民情便否, 訪問啓聞事. 六, 本州待變船, 增減便否. 七, 國馬照數, 以啓. 八, 牧子戶數, 及弊瘼, 問啓事. 九, 本州人, 投人內地者, 按籍查考事. 十, 定配罪人, 時存者閱數, 以啓事. 十一, 三邑軍額戶口, 開錄以啓事. 十二, 三邑軍器軍糧城池器械軍船格軍, 竝查察啓聞事. 十三, 本州出身禁軍士兵, 試才以啓. 十四, 本州儒生, 考講製述等第, 啓聞事. 十五, 黃魚川伏兵, 焚柴報變, 復設便否, 看察啓聞事. 十六, 本島官屬人民工役, 著爲定式事. 十七, 守令通政以上, 啓聞治罪, 通訓以下杖八十自斷, 監色刑推事也.”

42) 임홍선, 앞의 논문, 1994, 44면.

행문을 저술하였다.

청음은 해남에서 순풍을 기다리며 지은 시에서 ‘돌아가 南行錄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이상한 일 자랑하며 百歲翁이 되리라.(歸來細撰南行錄, 異事傳誇百歲翁)’⁴³⁾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 자신의 이번 기행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제주 도착 전부터 기행 기록을 남기겠다고 생각한 청음은 안무어사라는 직책으로 가는 만큼 자신이 수행한 임무를 임금에게 보고하기 위해 『남사록』을 저술한 듯하다. 이런 기행 기록을 저술하는 것이 사신으로 가는 자신의 마땅한 직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송시열⁴⁴⁾이 쓴 序文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선생께서는 이 사명을 받잡고 가셨는데 조정을 떠나서부터 돌아와 復命하시기까지 여러 달이 걸렸다. 그동안 길가며 지으신 글과 날마다 듣고 보신 것을 모두 거두어 기록하여 두 개의 巨篇으로 모으셨다. 程子가 일찍이 『咨訪은 使臣의 職分이라』⁴⁵⁾고 말씀하시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면서 관리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제주도민의 실정을 자세히 전달하고자 했다. 청음은 “해외의 일이 이렇게 심한 처지에 이르렀는데도 조정에서는 알 길이 없으니 정말로 통탄할 일이다”⁴⁶⁾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보고 듣고 몸소 느낀 제주민의 고충을 『남사록』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임금에게 알리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의도는 『남사록』 곳곳에 나타나며 특히 11월 18일 日記에는 弊瘼⁴⁷⁾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기록을 통해 제주민의 고충을 세상에 알리고 임금의 德化가 널리 퍼지길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신으로 직분을 다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알리기 위해 기록된 『남사록』은 일기체 형식의 기행문이다. 기행문은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 경험을 제공하는데 『남사록』 역시 청음의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통해 제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청음이 제주에서 느낀 자연경관의 아름다움과 기이한 풍속·풍물, 제주에서의 감회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적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지역적 정보

43) 「候風」, <次老杜秋興韻 八首>.

44) 宋時烈(1607~1689).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恩津. 아명은 聖賚. 자는 英甫, 호는 尤庵 또는 尤齋.

45) 『南槎錄』, 序文, “先生膺是, 命以行, 自辭朝以至復命, 凡其月矣. 其間沿途之所作, 及逐日耳目之所接, 靡不收錄, 聯爲二巨篇. 程子嘗曰, 咨訪使臣之職也.”

46) 『南槎錄』, 1601년 9월 29일 癸亥, “海外之事至於如此之甚, 而朝廷無路得知, 誠可痛也”

47) 弊瘼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封送馬之弊」로 말을 바치는 폐단이며, 둘째는 「生物價之弊」로 소와 관련된 폐단이며, 셋째는 「營軍官之弊」로 군관을 두는 폐단이다. 넷째는 「京貿易之弊」로 서울에 무역하는 폐단이고, 다섯째는 「京點馬之弊」로 서울서 點馬가 오는 폐단이다. (『南槎錄』, 1601년 11월 18일 壬子 참조)

중 제주 왕래의 노정, 특히 제주 해로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⁴⁸⁾

康津과 海南 두 縣은 모두 해변가에 있어서 대개 濟州에 왕래하는 公行은 반드시 이곳에서 배를 탄다. 海南이라면 館頭梁이고 康津이라면 白道島이고 靈巖은 梨津浦에서 배를 탄다. 또 梨津浦는 康津과 接해 있기 때문에 바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 이 세 곳에 모여서 머무른다. 每年 康津·海南 두 縣이 돌러가며 都會를 정하여 護送하는 일을 맡아 하게 된다. 올해의 都會는 마침 康津이라는 것이다.⁴⁹⁾

매년 강진과 해남이 돌아가며 도회를 정하는 것과 제주에 가면서 거쳐 간 곳에 대한 서술 등의 내용을 『남사록』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후에 제주를 왕래할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기를 바라는 청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남사록』의 제작 경위는 안무어사라는 사신의 신분으로 자신의 임무 수행을 보고하여 임금의 덕화가 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함이며, 청음의 경험을 통해 제주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후에 제주 기행 시 참고가 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제작 경위를 통해 저술된 『남사록』은 제주에서 저술된 것이 아니고 復命한 후에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9월 22일 日記를 통해 알 수 있다. 힘든 도해를 마친 후 제주에 도착한 당일 기록에 「風物」이라는 篇名을 들어 방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의 기록은 거의 제주 관련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쓴 것인데, 청음이 敎書를 宣讀하고 나서 “나는 피곤하여 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황홀한 것이 마치 배를 타고 있는 것 같다.”⁵⁰⁾라고 한 것처럼, 배 멀미로 고생해 피곤한 몸이 이끌고 기존의 자료를 찾아가면서 방대한 내용을 서술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사록』은 경험한 일을 그날그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체험을 마친 후에 체험 전체를 서술하면서 날짜별로 나눈 것이므로, 체험의 기준이 되는 9개의 篇名 속에 날짜가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아래의 <표1>로 확인할 수 있다.

48) 제주로 가는 배를 타는 곳부터 가면서 거쳐 간 곳 등에 대해 나열되어 있다.

강진-모노도-진도-독거도-초도-죽도-어란-어울-웅거-마삭-장고-광아도-애월 방호소(제주 도착).

49) 『南槎錄』, 1601년 9월 1일 乙未, “康津海南兩縣, 俱在海上, 凡往來濟州公行, 必到此乘船. 海南則館頭梁, 康津則白道島, 而靈巖, 梨津浦. 又與康津相接, 故待風者, 皆留集于三處. 每年, 輪定都會, 于康海兩邑, 管攝護送之事, 今年都會, 適是康津.”

50) 『南槎錄』, 1601년 9월 22일 丙辰, “余亦倦而就枕, 恍惚如在舟中.”

< 표1 > 편명별 내용

편명(篇名)	날짜	내용
남정(南程)	8/10~8/29	安撫御史가 되어, 朝廷을 하직하여, 康津에 이름.
후풍(候風)	9/1~9/20	發船을 못하고 康津과 海南에서 순풍을 기다림.
도해(渡海)	9/21~9/22	風浪을 겪은 일과 濟州官衙에 도착해서 王의 敎書를 宣布.
풍물(風物)	9/22	제주의 기후·역사·지리·풍속·토산 등에 대하여 읊음.
산제(山祭)	9/23~9/25	한라산 절정에 올라 山祭를 지내고, 오백장군동·존암의 내력을 낚.
명륜관덕 (明倫觀德)	9/26~10/11	明倫堂에서 儒生을 考講하고, 觀德亭에서 武士를 試才함.
사점(查點)	10/12~10/18	제주를 출발, 朝天·城山·旌義·西歸浦·大靜·明月 등 防護所의 防備를 點檢함.
자문폐막 (咨問弊瘼)	10/19~12/26	防護所巡視를 마치고, 제주로 돌아와 제주의 制度·進上品·不條理등을 밝힘.
조천관 (朝天館)	12/27~1/24	御史로서의 일을 모두 끝내고, 朝天館에 나가 船便을 기다림.
귀범(歸颿)	1/25~2/13	돌아오는 배에서 순풍을 잃고, 草蘭島에서 고생을 함.

위의 표와 같이 날짜기록이 일별로 분절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의 일부이며, 내용의 연속성이 보인다.

이렇게 일기체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남사록』은 월, 일, 干支, 숙소를 기록하고 일과의 서술을 덧붙이고 있다. 일과를 서술함에 있어 특이한 체험을 했거나 청음 자신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싶은 내용에 있어서는 방대하고 풍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것은 제주 관련 기존 자료를 인용하여 가능케 했다.

여기서 인용된 기존 자료로는 <지지>·<남명소승>·<표해록>·<충암록> 등이 해당하며, 편명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 표2 > 편명별 인용자료

편명(篇名)	인용된 자료
남정(南程)	없음
후풍(候風)	없음
도해(渡海)	『교서』, 『충암록』
풍물(風物)	<관풍안명환>, 『남명소승』, 『지지』, 『충암록』, <충암의 수정사중수기>, 『

	『풍토록』, 『필담』, 『표해록』
산제(山祭)	『남명소승』, 『지지』, <충암의 존자암중수기>, <한라산제문>
명륜관덕 (明倫觀德)	『충암록』, <관덕정기>, <명륜당중수기>, <중수명륜당서>, <충암선생사당기>, <충암선생사식령후발>, <쾌승정상량문>
사점(查點)	『남명소승』, 『담해록』, 『지지』, 『충암록』
자문폐막 (咨問弊瘼)	『남명소승』, <소승의 굴유보>, 『지지』, 『충암록』
조천관 (朝天館)	『지지』
귀범(歸颿)	『남명소승』, 『지지』, 『표해록』

인용된 자료 중 『남명소승』은 청음이 안무어사라는 공적인 일정으로 인해 유람하지 못한 공간을, 『지지』는 제주도의 각 지역의 지리적 위치, 역사, 기후, 언어, 풍속, 특산물 등에 대해서, 『표해록』은 바다와 관련되는 상황에 대해서⁵¹⁾ 서술하면서 청음의 견해를 보완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반면에 『충암록』 같은 경우는 충암⁵²⁾이 지닌 제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및 잘못된 견해 등을 들고 그것을 수정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제주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정립시키고 있다. 따라서 『남사록』은 기존 자료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견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잘못된 견해는 수정·보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체로 이루어져 있는 그 외의 기존 자료는 청음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는 곳과 관련된 글로 이전의 흔적을 드러내어 당시의 뜻을 전달함에 있다.

이렇게 『남사록』은 복명 후에 기록된 점을 미루어 내용상 연속성과 순차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주 기존 자료를 인용하여 작품 전체에 객관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일기라는 형식을 내세워 일정에 따라 체험한 사건을 사실적이고 주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51) 이상순, 앞의 논문, 2005, 55면.

52) 金淨(1486~1521). 조선 전기의 문신. 중종 때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형조판서 등을 역임하며, 조광조와 함께 미신타파·향약 시행 등에 힘썼으나 기묘사화 때에 제주에 안치되었다가 사사되었다.

Ⅲ. 『남사록』의 기행문학적 성격과 서정의 세계

1. 기행문학적 성격

『남사록』은 운문과 산문의 혼합적 서술양식을 통해 청음의 견문과 감회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다. 여기서 산문은 여정에 따라 여행 중의 견문과 이전 제주 기행과 관련된 기존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행지의 풍경, 생활 습관, 언어, 풍습, 명승고적, 역사적 사실이나 유래 등을 서술하면서 보고 들은 바를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남사록』이 안무어사라는 공적인 일정을 바탕으로 자신이 수행한 임무를 임금에게 보고하기 위한 저술이기 때문에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안무어사의 임무를 염두에 두고 기록된 『남사록』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적인 일정과 그 외의 사적인 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일정을 고찰하기에 앞서, 『남사록』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사록』은 「南程」「候風」「渡海」「風物」「山祭」「明倫觀德」「査點」「咨問弊瘼」「朝天館」「歸颿」과 같은 篇名을 바탕으로 구성·기록되었다. 이런 篇名을 바탕으로 한양을 출발하여 제주에 도착하는 과정과 제주에 도착하여 체류하였을 때의 일정, 그리고 제주에서 한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실려 있다.

즉 한양을 출발하여 제주에 도착하는 과정은 「南程」「後風」「渡海」 즉, 8월 13일부터 日記에 해당하며, 제주에 도착하여 체류하였을 때의 일정은 「風物」「山祭」「明倫觀德」「査點」「咨問弊瘼」「朝天館」 즉, 9월 22일부터 1월 24일에, 제주에서 한양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歸颿」 즉, 1월 25일부터 2월 14일 日記에 해당한다.

이런 구성 가운데 청음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힘든 渡海를 마친 후 제주에 도착하여 敎書를 선포하는 부분부터이다. 따라서 篇名상 구분하자면, 「渡海」부터 제주에 도착하여 체류하는 시기인 「風物」「山祭」「明倫觀德」「査點」「咨問弊瘼」「朝天館」에 해당하며, 즉 9월 22일부터 1월 24일 日記에 해당한다. 이런 공적인 일정을 중심으로 기술된 부분을 『남사록』의 기록에서 찾아보면 아래 <표3>과 같다.

< 표3 > 어사로서의 공적 일정

공적인 일정	편명(篇名)	기록 일자
--------	--------	-------

제주도민에 대한 敎書의 선포	渡海	9/22
한라산 신에 대한 致祭	山祭	9/25
전·현직 守衛이 현명한지의 여부 조사	風物	9/22
	明倫觀德	9/26
	咨問弊瘼	10/23
公事を 빙자하여 私利를 도모하는 것을 적발 및 금지	風物	9/22
國馬와 牧子の 실태 조사	查點	10/14
	咨問弊瘼	12/20
방어시설 및 군비의 실태 조사	查點	10/14~17
	咨問弊瘼	10/23
	"	12/20
本州 군인과 유생의 시험 선발	明倫觀德	10/8~9
	查點	10/14
	咨問弊瘼	10/23
	"	10/29
	"	11/1~3
	"	12/20
민정 시찰	風物	9/22
	咨問弊瘼	10/23
	"	11/18
工役에 대한 분명한 원칙 수립	風物	9/22
	咨問弊瘼	10/23
	"	11/18
	"	12/20
戶口 실태 조사	風物	9/22
	查點	10/14
	"	10/16
	咨問弊瘼	10/23
	"	12/20

이렇게 『남사록』 文部를 통해 여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지역이나 대상에서 드러나는 개인적 감회는 산문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한시를 통해 이끌어 내고 있다. 한시라는 운문을 통해 청음이 제주에 가면서 느꼈던 감회, 제주 생활에서 오는 객회와 향수뿐 아니라 자연경관이나 풍물·풍속을 접하고 느꼈던 견해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청음이 보고 들었던 제주의 풍경과 풍물·

풍속 등을 서술함에 있어 객관성 유지를 위해 기존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견해나 감정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기존 자료에 짧게 덧붙이거나 한시라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어, 주관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런 청음의 견해나 감정을 서술하는 한시는 산문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산문에 한시를 삽입하여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⁵³⁾하고 있다. 즉, 산문으로 여정과 견문을 기존자료에 의존하여 서술하고 있어 자칫 문학이라는 측면보다는 기록이라는 측면에 치중되어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청음은 한시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함으로써 『남사록』의 문학적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남사록』은 산문과 운문의 혼합양식을 통해 견문과 감상을 드러내고 있어 기행 문학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한시에 나타난 서정

『남사록』에는 청음 자작시 65편과 다른 사람의 시 40편이 수록⁵⁴⁾되어 있다. 여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양을 출발하여 제주에 도착하는 과정에 18편, 제주에 도착하여 체류하였을 때에 83편, 제주에서 한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4편이 실려 있다. 이 중에서 남의 시 40편은 청음의 공감을 얻은 시이며, 청음의 자작시 65편은 이번 기행을 통해 자연경관 및 이국적인 풍물·풍속을 접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더불어 자신의 감회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시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달라지는데, 이에 해당하는 시를 편명(篇名)당 살펴보면 아래 <표4>, <표5>와 같다.⁵⁵⁾

< 표4 > 청음의 자작 한시 목록

	신비한 자연경관	수	이국적 풍물과 풍속	수	객회와 향수	수
남정	없음		없음		<果川道中>, <水原道中>, <奉呈主牧休庵大哥>, <礪山道中>, <金溝蓮亭>	8

53) 이상순, 앞의 논문, 2005, 46면.

54) 최두식, 앞의 논문, 1992, 60면.

55) 『남사록』 소재 한시를 분류하는 기준은 첫째, 제주의 자연 경관에 대해 읊으면서 신비화 하고 있는 시들은 신비한 자연 경관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제주의 풍물과 풍속에 대해 이국적이며 색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시들은 이국적 풍물과 풍속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제주로 가는 여정 및 제주 생활을 통해 느끼게 된 나그네로서의 감정들을 나타낸 시들은 객회와 향수로 분류하였다. 넷째, 두보나 소동파 등에 차운한 시도 세 가지 분류기준 중 해당하는 부분에 포함시켰다. 다섯째, 객회와 향수 및 개인적인 감정 등을 다루고 있으면서 신비한 자연경관 및 이국적 풍물·풍속과 관련되어 있으면 후자로 분류하였다. (부수상, 앞의 논문, 2002, 참조)

				<泰仁養眞堂>, <披香亭次板上韻>, <錦城道中>	
후풍	없음		없음	<客夜書懷效吳體>, <題山人德雄詩卷>, <醉席口占>,<卽席>, <望遠樓別伯胤>, <館頭睡起>, <次老杜秋興韻>	7
도해	없음		없음	<將出海口寄洛中諸友>, <次東坡渡海詩韻>	2
풍물	없음		없음	없음	
산제	<千佛峯>,<壯觀篇>, <老人星>,<尊者庵>	4	없음	<祭後登絶頂敬次雪淳軸 中外王父詩韻>	1
명륜 관덕	<觀德亭>	1	<補毛羅歌敬次佔畢 齋韻>	1 <遣興>,<曉起>	2
사점	<城山>,<水山廢城>, <牛島>, <旌義客舍次板上韻>, 석상에 쓴 시, <山房>,<松岳山>, <明月城暮投遣興>, <斗泉>,<龍頭巖>, <涯月城上望海惡>	11	<馬屯>	1 <戀北亭次李金吾汝惕韻>, <次原韻>,<大靜道中>	3
자문 폐막	<毛興穴>, <夜登快勝亭>	2	<新橋>,<果園>	2 <次社詩至日韻>, <雪夜獨坐>,<旅況>, <坐夜>, <次老杜獵日詩韻>	5
조천 관	없음		<題館壁>	1 <除夕>,<次簡齋韻>, <元日>,<次簡齋韻>, <謝雪淳丈老來訪>, <次老杜人日韻>, <雪中遣興>, <朝天館雜詠>, <次老杜立春日韻>, <戀北亭春帖子>,<初昏>, <阻風戲成俳優體五絶>	12
귀범	<題草蘭島石壁>	1	없음	제목 없음	1
합계		19		5	41

< 표5 > 인용 한시 목록

	신비한 자연경관	수	이국적 풍물과 풍속	수	객회와 향수	수
남정	없음		없음		없음	
후풍	없음		없음		<次(善鳴)>,<次(伯胤)>	2
도해	없음		없음		없음	
풍물	<耽羅詩(崔溥)> ⁵⁶⁾		<耽羅詩(崔溥)>,<小乘(林悌)>	2	없음	
산제	<五百將軍洞(林悌)>,<步虛詞(林悌)>,<又(林悌)>	3	없음		없음	
명륜관덕	<示全教授穎達(金應南)>	1	<佔畢齋毛羅歌(金宗直)>	1	<題詠(觀德亭)(鄭麟趾)>,<又(李約東)>,<又(柳義臣)>,<又(李耘)>,<又(閔渾)>,<又(沈連源)>,<又(李希雍)>,<又(林亨秀)>,<又(趙士秀)>,<又(柳思瑗)>,<示河正字弘秀(金泰廷)>,<海濤撼城作(林悌)>	12
사점	<利涉亭(林亨秀)>,<普門寺(僧慧日)>,<牛島歌(金淨)>,<又(柳思瑗)>,<靈泉館(李約東)>,<原韻(李忠烈)>,<原韻(林亨秀)>,<又(林悌)>,<翠屏潭(林悌)>,<逝川庵(僧 慧日)>,<妙蓮寺(僧慧日)>	11	<原韻(林亨秀)>	1	<又(林悌)>,<又(林亨秀)>,<又(柳思瑗)>	3
자문 폐막	<又(林悌)>	1	없음		<曉窓聞啼鳥(林悌)>	1
조천관	없음		없음		없음	
귀범	없음		없음		<迎郎曲(林悌)>,<送郎曲(林悌)>	2

합계		16		4		20
----	--	----	--	---	--	----

<표4>은 청음이 지은 한시 목록이며, <표5>은 인용한 한시 목록에 해당한다.

『남사록』 소재 한시를 내용상 분류해보면 청음이 왕명을 받고 가게 된 제주가 독특한 환경과 풍습 등을 가지고 있어, 그로 인해 느끼게 되는 나그네의 감정을 드러내는 시가 가장 많다. 청음은 제주에서의 객수를 노래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자연경관을 묘사한 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제주의 독특한 풍물과 풍속을 담은 시들도 있다. 위와 같은 특징은 청음 자작시외 타인의 시에도 나타나는데 이는 청음의 공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청음 자작시 중 향수와 객수를 드러내는 작품은 한양을 출발하여 제주에 도착하기 전과 제주를 출발하여 한양을 도착하기 전에 많이 나타나는 반면에 타인의 시는 제주 기행 중인, 특히 「명륜관덕」이란 편명 속에 많이 삽입하고 있다.

「명륜관덕」에 삽입된 한시 대부분은 태평성대와 임금에 대한 충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음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시를 많이 삽입하여 임금의 덕화를 칭송하며 관리인 자신의 충성심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전 제주를 다녀간 관리들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동일시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남사록』에는 청음이 지은 시와 타인이 지은 시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먼저 자시를 적고 그 후에 타인의 시를 첨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의 시는 청음의 공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제 청음이 제주기행을 통해 보게 된 제주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으며, 한양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처음 떠나게 된 청음 자신의 감회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1. 신비한 자연 경관

육지로부터 제주도 내에 들어오는 사람은 대부분 관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임지에 오게 된 牧民官들과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고립된 환경으로 배척당하고 격리된 流配人들이었다. 이들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있는 절해고도의 제주도를 향할 때는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호기심보다 큰 것이 사실인데, 청음 역시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

56) 崔溥의 耽羅詩는 자연경관과 풍물·풍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중복·표기하였음.

이는 1487년 9월 제주지역 推刷敬差官으로 파견되었던 최부가 이듬해인 1488년 정월에 부친상의 소식을 듣고 귀향 중에 풍랑을 만나 남중국으로 표류⁵⁷⁾한 경우가 있어 청음에게는 제주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음은 바람을 만나 표류할 때를 대비하여 비변사에서 軍官 2名, 漢語, 倭語통역 각 1명, 都監砲手 2명을 給送하기를 청했는데 임금께서 대답하기를 不可하다고 하셨다.⁵⁸⁾ 이때 허락해주지 않은 사정은 표류 하였을 때를 대비하지 못한 불안감을 품게 하였는데, 이는 청음의 『남사록』 文部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최금남의 『漂海錄』을 보면, 우리 사람이 公事나 私事로 제주를 왕래 하다가 더러 바람을 만나 행방불명이 된 자가 셀 수 없이 많다. 이 어찌 모두 물에 빠졌겠는가. 섬 오랑캐 나라에 표류해 들어갈 것 같으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랄 수 없게 되고, 비록 더러 중국의 영토에 표착해도 역시 해변의 사람들의 오인으로 왜적이라 하여 귀를 잘라 상을 타니, 누가 그 실정을 판별하겠는가. 우리나라도 中朝 의 제도에 따라 높고 낮은 모든 사람에게 號牌를 주고, 또 통역 1명을 제주에 두어 사신과 三邑 수령을 받들게 하며 왕래할 때 항상 같이 다니게 하여 장래에 대한 생각을 해두면 이런 걱정을 모두 면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⁵⁹⁾

그러나 文部와 달리 청음은 詩에서 표류에 대한 걱정보다는 제주에 대한 기대감을 더 드러내고 있다.

제주로 가기 위해 해남에서 순풍을 기다리면서 쓴 시에서는 “듣자니 耽羅는 경치가 썩 좋다네. 누른 유자 푸른 굴이 주렁주렁 달렸고.(聞說耽羅尤勝絕, 黃橙綠橘亂垂垂)”⁶⁰⁾ 와 같이 앞으로 제주에서 볼 경치에 대해, “오늘날 처음으로 넓은 세계 보게 되니(今日始看寬世界)”⁶¹⁾와 같이 망망한 바다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넓은 세계를 볼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기대감이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배지로 인식⁶²⁾되던 제주에 대해 순수한 감성으로 아름답게 바라볼

57) 『南槎錄』, 「등장인물」.

戊申年에는 濟州推刷敬差官이 되어, 갔다가 아버지의 喪을 듣고 돌아오고자 하였는데 漂流해서 浙江省의 台州에 이르렀다.

58) 『南槎錄』, 1601년 8월 10일 乙亥, “本·司又啓請, 給送軍官二人, 漢倭通事各一人, 都監砲手二名, 答口不可.”

59) 『南槎錄』, 1601년 8월 10일 乙亥, “按崔錦南漂海錄, 我國人爲公爲私, 往來濟州, 或遭豐無去處者, 不可悉數, 是豈盡沈於海波乎. 若彪入島夷者, 無復望還. 雖或漂至中國之界, 亦爲邊人所誤認, 誣以倭賊, 折馘受賞, 誰能辨其情乎. 我國, 若依中朝制, 凡上下人員, 各給號牌, 又置通事一員於濟州, 凡奉使臣, 及三邑守令往來, 常時帶行, 以圖後慮, 然後庶免此患云.”

60) 「候風」, <次老杜秋興韻 八首>.

61) 「渡海」, <將出海口寄洛中諸友>.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음은 “이번 유람 神仙과의 연분이 있어선데, 漢拏 높은 마루엔 紫草芝草 많다네.(自詫茲遊有仙分, 漢拏高頂紫芝肥)⁶³⁾ 처럼 이번 유람의 원인을 신선과의 연분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제주를 신선이 사는 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기운과 자신의 기운이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견해를 담아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장관편(壯觀篇)>

漢拏何雄哉
千年鎮南軸
厚根壓巨鰲
高處磨朱雀

한라산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웅장한가.
千년을 내려오며 南軸의 鎮山이라.
根基가 두터우니 巨鰲를 진압하고,
높은 봉우리는 朱雀에 닿았어라.

.....

自古稱瀛洲
神仙之所宅

예부터 瀛洲라고 불려오는 이곳은,
신선이 집짓고서 살아온 곳이니라.

.....

瑤壇簇雲車
恍惚成良覲
燭影颺鑪香
仙樂淹笙鶴

신선이 사는 곳에 雲車가 모여드니,
황홀하게 신선들의 좋은 모임 이루었네.
촛불 그림자는 鑪香을 드날리고,
신선의 풍악소리 笙鶴이 머무르네.

.....

62) 최강현, 앞의 책, 1982, 74면. 표 참조.

<조선시대 배소별 유배지의 분포>

8도		전 라 도												
지방별	제주	진도	강진	흑산도	해남	광양	장흥	고금도	정의	영암	기타			
유배지	41	25	14	13	9	7	7	7	6	6	70			
도별계	250													
경 상 도							합 경 도							
거제	남해	영해	김해	양산	고성	기타	종성	갑산	경원	삼수	경흥	기타		
19	15	10	8	6	5	64	14	12	11	7	7	46		
127							97							
평안도						충청도					경기도			
강계	삭주	영변	벽동	의주	기타	아산	직산	공주	홍양	부안	기타	강화	남양	기타
12	7	7	6	6	51	8	5	4	4	4	50	7	3	28
89						75					38			
황 해 도				강 원 도			비 고							
연안	금천	철도	기타	홍천	철원	기타								
4	4	3	15	3	3	9								
26				15										

63) 「候風」, <次老杜秋興韻 八首>.

倘無三生緣
安能托塵跡
仍題壯觀篇
寄謝羽衣客

진실로 三生の 인연이 없는 바에,
어찌 티끌 흔적을 의탁할 수 있으랴.
그래서 여기에 <壯觀篇> 글을 지어,
고맙다는 뜻으로 羽衣客에 부치노라.⁶⁴⁾

이 시는 9월 25일 日記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청음은 제주에 도착하여 첫 공식적인 일정으로, 산제를 지내기 위해 올랐던 한라산을 선계의 땅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선 청음은 한라산을 남쪽의 鎮山으로 이해하고 있다. 鎮山이란 천년동안 도읍지나 각 고을에서 그곳을 鎮護하는 主山으로 정하여 제사하던 산으로, 한라산이 이에 해당하며 예부터 瀛洲⁶⁵⁾라고 불려왔다고 한다. 여기서 ‘瀛洲’, ‘神仙之所宅’, ‘瑤壇’ 등은 모두 선계와 관련된 것이며, 특히 이 산에 雲車가 모여든다고 하여 신선의 지역답게 신비화하고 있다.

이렇게 한라산을 신비하게 여기면서 청음 자신을 ‘티끌’과 ‘흔적’으로 비유하여 신선의 세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맙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자신이 신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선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음에게는 한라산이 ‘속세’의 인간들이 신선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특수한 공간으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음보다 이전에 제주를 방문했던 임제는 『남명소승』에서 기후적 조건이 맞지 않아 한라산에 오르지 못하고 훗날을 기약하는 내용을 한시로 적고 있다.⁶⁶⁾ 청음은 제주 출발이전에 제주 관련 기록을 많이 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글을 보고 자신 또한 한라산의 절경을 보지 못할까 걱정한 듯하다. 그러나 결국 오르게

64) 김희동, 『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102-107면.

65) 삼신산 중 하나. 삼신산이란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세 神山, 즉 蓬萊山·方丈山·瀛洲山이 해당한다. 《史記》《列子》에서 비롯된 이야기로, 《열자》에 의하면, 渤海의 동쪽 수역만 리 저쪽에 五神山이 있는데, 그 높이는 각각 3만 리, 금과 옥으로 지은 樓閣이 늘어서 있고, 珠玉으로 된 나무가 우거져 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不老不死한다고 한다. 그곳에 사는 사람은 모두 仙人들로서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아가는. 오신산은 본래 큰 거북의 등에 얽혀 있었는데, 뒤에 두 산은 흘러가 버리고 삼신산만 남았다고 한다. 《사기》에 의하면, BC 3세기의 전국시대 말, 발해 연안의 제왕 가운데 삼신산을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秦나라 始皇帝가 가장 神仙說에 열을 올려 자주 삼신산을 탐험시켰다. 한번은 方士(仙術을 행하는 사람) 徐市이 소년과 소녀 수천 명을 이끌고 배에 올랐는데, 결국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사건은 특히 유명하다. 한국에서도 중국의 삼신산을 본떠 금강산을 봉래산, 지리산을 방장산, 한라산을 영주산으로 불러 이 산들을 한국의 삼신산으로 일컬었다고 한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삼성신화’ 항목, 참조)

66) 夢騎黃鶴尋瀛洲
中有仙人見我揖
星冠霞佩繡雲衣
贈我金丹如粟粒
瓊樓他日約重遊
碧桃花老千千秋
꿈속에 황학을 타고 영주로 찾아 가니
그곳의 신선님네 나를 보고 맞이한다.
星冠이라 霞佩에 구름 수놓은 옷
그 신선 내게 준 金丹 알알이 좁쌀 모양
경루에서 다시 놀기로 훗날 기약을 두었거니
벽도화 시드니 만년이 어제라오.

된 연유를 삼생의 인연, 신선과의 인연으로 돌리고 있다. 또한 신선의 지역, 선계의 땅에 오게 된 것에 대해 크게 감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선녀와 신선을 의미하는 羽衣客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장관편이라는 글을 짓겠다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여기서 신선의 이미지는 ‘羽衣客’이란 표현으로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제주를 선계로 보는 인식은 그 뒤에도 계속 나타난다.

<성산(城山)>

城山屹立海濤中
氣勢雄蟠漢岫東
南極未論千里遠
西峯纔許一人通
北關戍卒防秋地
合作神仙避暑宮
可惜鴻濛動用意
漫從荒裔費天工

海濤 가운데 城山은 우뚝한데,
漢岫(한라산) 동쪽에 氣勢크게 도사렸네.
南極星 千里나 멀다고 말 못하고,
西峯은 간신히 한사람 지내 보내.
戍卒의 防秋地론 적합하지 않지만,
神仙의 避暑地론 아주 잘 만들었네.
아깝다 東녘 들에 애써 준비하였으나,
아득한 나라 끝에 天工을 虛費했네.⁶⁷⁾

이 시는 10월 13일 日記에 기록되어 있는데, 청음은 城山을 구경한 후 城山の 絶景에 대해 『남사록』 文部に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城山을 보건대, 제주(음)의 동쪽 一백二十리에 있고, 旌義에서의 거리는 三十리, 大靜에서의 거리는 一백五十리이다. 한라산 東北쪽부터는 비록 기복이 있어 산을 이루고 있으나, 그다지 높고 크지는 않다. ~ 中略 ~ 外城으로부터 올라가면 二三리는 되는데, 벼랑이 기대고 돌을 피하여 겨우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다. 左右의 기암괴석은 사람이 서 있는 것 같고 짐승이 달리는 것 같기도 하다. 羊腸처럼 꼬불꼬불하고 한걸음 한걸음이 떼어 놓기 어렵다. 가끔 다리를 걸쳐서 기웠는데 이 棧道가 타서 끊긴다면 사람이 통행할 수 없다. 그 꼭대기는 돌 봉우리가 에워싸고 있어 마치 山城과 같다.(옛 이름이 山城이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⁶⁸⁾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된 내용을 시의 수·함련에 간결하게 담고 있다.

남사록 文部에서 성산에 대해 “벼랑에 기대어 돌을 피하여 겨우 한사람이 통과

67) 김희동, 앞의 책, 1992, 162면.

68) 『南槎錄』, 1601년 9월 13일 丁丑, “按城山, 在濟州之東一百二十里, 距旌義三十里, 距大靜一百五十里, 自漢拏東北, 雖起伏爲山, 而不甚高大, ~ 中略 ~, 由外城而上可二三里, 緣崖避石, 僅通一人, 左右奇巖怪石, 人立獸走, 羊腸屈盤, 步步艱險, 往往補以棧道, 若燒絕棧道, 人不得通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이 드나들기 어려운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시의 경련에서 “戍卒의 防秋地론 적합하지 않지만, 神仙의 避暑地론 아주 잘 만들었네.(北關戍卒防秋地, 合作神仙避暑宮)”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신선들이나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文部에서 드러난 불모지와 같은 사실적인 공간으로의 이미지가 아닌 신비한 신선만의 공간으로 성산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련에서는 奇巖怪石의 絶勝地가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못함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땅 끝에 오히려 이 멋진 경치를 펼쳐 놓은 天工을 嘲笑하고 있다. 그러나 “아득한 나라 끝에 天工을 虛費했네.(漫從荒裔費天工)”라는 끝 句節을 통해서 逆說적으로 城山이 絶景임을 強調하고 있다.⁶⁹⁾ 따라서 이런 城山과 같이 제주를 인간이 살기보다는 신선이 살기에 더 적합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 선계의 땅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도(牛島)>

曾讀沖庵七言詩
始聞瀛海閤環奇
當時每恨仙區隔
今日還爲颶母欺
咫尺勝遊知有數
平生壯觀更無期
清都舊侶如相念
應許他年夢裡窺

일찍이 金沖庵의 七言詩를 읽어서,
제주바다 신기로움 비로소 알았었네.
그 당시는 仙區가 멀다고 한탄했는데
오늘에는 颶母가 날 속인다 말을 하네.
지척에서 勝遊함은 運數가 좋기 때문,
평생에 이런 壯觀, 또 볼 수는 없을 것.
서울의 옛 친구들 생각을 할 량이면,
다음에 꿈에서나마 엿보게 하여줍세.⁷⁰⁾

이 시 역시 10월 13일 日記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게 된 데 대한 숨길 수 없는 환희를 표현하고 있다.

청음은 안무어사라는 왕명을 받고 제주에 관련된 글을 많이 읽었던 듯 보인다. 그 중 충암의 칠언시⁷¹⁾를 통해 제주바다의 신기로움을 알게 된 듯하다. 따라서

69) 변영미, 「제주 한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5, 35면.

70) 김희동, 앞의 책, 1992, 163면.

71) 溟濤崩海嶽山腹 바다물결 출렁이며 山허리를 씹는데,
 豁豁洞天深雲扃 洞天은 넓찍하고, 구름 빗장 深幽하네.

瓊宮淵底不可見 瓊宮淵 밑바닥은 깊어서 볼 수 없고,
 有時隱隱窺窓櫺 때로 창살 틈으로 隱隱함이 엿보이네.
 軒轅奏樂馮夷舞 黃帝의 풍악소리에 海神이 춤을 추고,
 玉簫吹篠來青冥 玉簫은 아득히 먼 하늘에서 내려오네.
 宛虹飲海垂長尾 무지개는 바닷물 마셔 긴 꼬리 드리우고,
 羸鵬戲鶴飄翅翎 大鵬은 학과 놀며 나래를 펼치네.

앞으로 볼 제주바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청음이 바다를 건너가는 첫 기행이니만큼 제주 바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접했던 기존 자료를 통해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던 듯하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진 청음이 제주 도착 후 보게 된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매료되어, 이런 절경을 보게 된 것이 자신의 운수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즉 天定이라는 운명론적 사고를 바탕으로⁷²⁾ 하고 있다. 또한 다분히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평생에 이런 장관, 또 볼 수 없을 것.(平生壯觀更無期)”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주의 절경에 대해 황홀해 하고 있다.

<송악산(松岳山)>

由來此地號瀛洲
環海名山摠可遊
天聳露臺臨萬仞
石盤雲骨老千秋
笙簫夜月逢仙侶
簾幕春風見蜃樓
便覺飄飄成羽化
凌虛直欲到蓬丘

예부터 이 땅은 영주라고 하였는데,
바다 돌며 모두가 놀만한 名山일세
하늘까지 솟은 露臺, 萬 길 위에 임하니,
石盤과 雲骨은 千秋에 늙었구나.
피리 부는 밤달은 仙侶를 만나보고,
簾幕의 봄바람에 신기루를 보겠구나,
가벼이 뚱뚱 떠서 신선이 된 듯 느껴지니,
곧바로 하늘을 날아 蓬萊山에 가리로다.⁷³⁾

이 시는 10월 17일 日記에 실려 있는데, 위의 시에서 청음은 송악산⁷⁴⁾의 빼어난 경치에 감탄하며, 簾幕의 봄바람에 신기루를 구경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 땅 또한 예부터 영주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한라산과 견줄 만큼 경치가 빼어나서 이름 붙여진 것이라 짐작된다. 명산인 송악산을 삼신산 중 하나인 영주산으로 보고, “끊어 놓은 듯한 절벽은 높이가 千길은 될듯하고, 모두 파도에 씹히고 침식당한 모습을 하고 있다. 앞에는 한 무더기 모래가 쌓여서 봉우리가 돼 있는데 위에는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있다.”⁷⁵⁾라고 하는 『남사록』 文部의 내용에서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이 땅이 형성되어 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형성되어온 송악산의 자연 경관을 경험하고 청음 자신이 신선이 된 듯 황홀함에 젖어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음 자신도 신선들처럼 날아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즉,

72) 성범중, 앞의 논문, 2005, 112면.

73) 김희동, 앞의 책, 1992, 190면.

74)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위치한 산으로, 산방산(395m)의 남쪽, 가파도가 손에 잡힐 듯 보이는 바닷가에 불끈 솟은 산이 송악산이다. 99개의 작은 봉우리가 모여 일명 99봉이라고도 한다.

75) 『南槎錄』, 1601년 10월 17일 辛巳, “斷壁高可千仞, 而皆有波濤嚼食之狀, 前有一朶積沙爲峯, 而上有海水往來之痕.”

선계의 땅에 들어온 자신을 신선처럼 느끼고 있다.

한양을 출발하여 제주를 도착하기 전에는 왕명만 아니라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던 청음인데 제주에서 접한 자연경관을 통해 안무어사라는 책임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듯 보인다. 이는 “아, 나는 문지방이 막혀있다 말만하니, 어찌 신선들처럼 바람 탈 수 있으랴?(嗟我只道隔門限, 安得列叟乘風泠)”⁷⁶⁾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충암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같은 제주의 자연경관을 통해서도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충암은 유배라는 속박된 상황에 놓여있어 유배지인 제주의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불만한 마음의 여유는 지니지 못했던 듯하다. 그러나 청음 역시 제주로 가게 된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자연경관을 통해 청음은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찾은 듯 보인다.

즉, 청음은 선계의 땅인 제주에 와서 신비한 자연 경관에 매료되어 심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흥혈(毛興穴)>

荒涼古穴鎖寒烟
首出三人問幾年
當日自然歸伉儷
後來應復返神仙
千秋香火遺風在
百世婚姻舊俗傳
欲起頽碑記處所
金剛寺外社壇前

황량한 古穴은 찬 안개에 단혔는데,
처음에 나온 세 분, 묻노니 몇 해런고.
당일에는 자연히 짝 찾아 돌아갔고,
뒤에는 응당 다시 神仙이 되었으리.
千秋의香火는 遺風으로 남아 있고,
百世의 혼인은 舊俗으로 전하네.
낡은 碑石 일귀 세워 장소를 기록하니,
金剛寺 바깥쪽의 社壇의 앞이라네.⁷⁷⁾

모흥혈을 지나면서 지은 이 시는 11월 1일 日記에 기록되어 있는데 청음이 제주를 선계의 땅으로 인식하게 했던 이유를 三姓神話⁷⁸⁾에서 찾고 있다. 제주의

76) 「査點」, <牛島歌>

77) 김희동, 앞의 책, 1992, 212면.

78) 제주도의 3성 씨족에 관한 시조 신화. 태초에 탐라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약 4300여 년 전 한라산 북쪽 기슭의 毛興穴에서 삼신인이 솟아났다. 이들을 乙那라 이름하여 첫째는 良乙那, 둘째는 高乙那, 셋째는 夫乙那로, 3성씨의 시조가 된다. 그들은 수렵과 육식생활을 하며 사이좋게 살다가 어느날 동해에서 떠내려온 자주색 흙으로 봉한 나무 상자를 발견하였다. 상자를 열어 보았더니 알처럼 된 둥근 玉函과 함께 자주색 옷에 관대를 한 使者가 나왔다.

옥함 속에는 아름다운 세 처녀와 송아지, 망아지, 오곡의 씨앗이 있었다. 사자는 자신을 碧浪國 사람이라 소개하고 세 처녀는 자기 나라의 공주로서 삼신인의 배필이 되고자 모시고 왔다고 말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이에 삼신인은 하늘에 고하고 나이 순서대로 세 공주와 혼례를 올리고 농경생활을 시작하였다. 삼신인은 각기 정주할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도읍을 정하기로 하고 한라산 중턱에 올라 거주지를 선택하는 활을 쏘아 제주도를 삼등분하였다. 良乙那는 지금의 제1도(제국), 高乙那는 제2도(대정), 夫乙那는 제3도(정의)에 터를 잡아 오곡을 심고, 송아지와 망아지를 기르며, 촌락을 이루고, 자손을 번성하여

기원이 되는 삼성신화와 관련하여 『남사록』 文部에서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주 옛날에는 사람과 짐승이 없었는데 세 神人이 땅에서 솟아 나왔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三姓이 나타난 것은 바로 九韓때에 해당하는데, 지금 鎭山(한라산을 말함)의 북쪽 기슭에 毛興穴이라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그 땅이다. 말이는 良乙那라 하고, 다음은 高乙那라 하고, 다음은 夫乙那라고 하였다.⁷⁹⁾

이런 文部와 같은 기록 내용을 수련에 담고 있으며, 함련에서는 이 세 분이 응당 다시 신선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면서 신비스럽게만 여기고 청음 자신을 신선과 같이 느끼게 했던 제주를 이런 신화를 통해 더욱 신성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시구에서 과거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면 미련에서는 현실에서의 관점을 표현하고 있다. 즉 삼성신화의 영기가 서려있는 모흥혈에 삼성단이라는 사당을 세워 옛 자취를 더듬어 보고 있는데 그때의 기운이 청음에게 전해지는 듯하다.

그러나 뒤에 제주에 유배 왔던 북헌의 시에서는 같은 모흥혈이라는 장소를 지나면서 다른 느낌의 한시를 짓고 있다. 물론 신성한 곳으로 보고 있는 점은 같으나 “사당을 세워 근본에 보답하려 하지만, 요원하여 슬퍼할 수 없네.(建祠雖報本, 遙遠不能哀)” 즉 “삼성신화의 영기가 서려 있는 모흥혈에 삼성단이라는 사당을 세워 옛 자취를 더듬어 보려 하지만 아득한 세월 속에 묻혀 옛일을 실감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⁸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한시를 짓는 작자의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한시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청음은 안무어 사라는 임무를 통해 오게 된 제주의 자연경관에 대해 선계의 땅으로만 인식하던 것에서 나아가 신성한 공간으로 여기게 됨을 알 수 있다.

2.2. 이국적 풍물과 풍속

청음은 제주의 자연경관에 대해 “平生에 이런 壯觀, 또 볼 수는 없을 것.(平生壯觀更無期)”⁸¹⁾이라고 말하면서 찬탄을 하고 있다. 물론 청음의 이번 제주 기행은 공무를 위한 것이기에 유적지나 勝景을 찾아다니며 유람을 할 여유가 있는

탐라국의 기초를 쌓았다는 내용이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삼성신화’ 항목 참조)

79) 『南槎錄』, 1601년 11월 1일 乙未, “厥初無人物, 三神人從地湧出, 又曰三姓之出, 正當九韓時, 今鎭山北麓, 有穴曰毛興, 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次曰夫乙那.”

80) 부수상, 앞의 논문, 2002, 55면.

81) 「査點」, <牛島>.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 장소를 지나면서 후일을 기약해야만 하는 경우⁸²⁾도 종종 보이지만 이런 바쁜 정사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제주의 절경들을 두루 둘러보면서 외지인으로 처음 접하게 되는 섬사람들의 생활과 습속, 풍물 등이 새롭게만 느껴졌을 것이다. 물론 제주는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못하는 곳에 위치해 다른 어느 지역과도 다른 풍물·풍속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絶島이고 일본과 중국이 왕래하는 航海上에 위치하여 왜적이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출몰⁸³⁾하였다. 이런 왜적의 침입으로 인해 고려 忠烈王때 원나라에 복속되기도 하였다.⁸⁴⁾ 이런 과정 속에서 제주의 풍물과 풍속이 더욱 이국적인 모습을 갖추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주의 풍물과 풍속을 이국적으로 인식한 것은 청음뿐 아니라 추쇄경차관으로 제주에 왔던 최부에게도 발견할 수 있다. 그가 지은 탐라시는 “文物은 모조리 周나라의 禮樂이고, 版圖는 禹임금의 山川이 되었구나(文物儘從周禮樂, 版圖編入禹山川)”⁸⁵⁾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선과는 다른 풍물과 제도를 제주가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이국적인 풍속과 풍물에 대해 청음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2.1. 이국적 풍물

제주로 가기 위해 해남에서 순풍을 기다리면서 쓴 시에서 “듣자니 耽羅는 경치가 썩 좋다네. 누른 유자 푸른 귤이 주렁주렁 달렸고.(聞說耽羅尤勝絕, 黃橙綠橘亂垂垂)”⁸⁶⁾와 같이 제주 경치뿐만 아니라 풍물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풍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접한 제주의 귤은 종류도 다양할뿐더러⁸⁷⁾ “집집마다 귤과 유자요.(家家橘柚)”⁸⁸⁾라고 할 만큼 집집마다 귤원을 가지고 있어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2) 「南程」, <泰仁 養眞堂 二首>.

王事忽忽不暫停	王事가 忽忽하니 잠시인들 멈출소냐,
馬前笳鼓又催行	馬前의 笳鼓소리 또한 같길 재촉하네
歸時約與園亭宿	돌아갈 때 園亭에서 자고가길 기약하니
更償今來未了情	그때나 오늘 못 다한 情懷를 풀어볼까.

83) 이상순, 앞의 논문, 2005, 12면.

84) 김희동, 앞의 책, 1992, 54면.

85) 「風物」, <耽羅詩 三十五絶>.

86) 「候風」, <次老杜秋興韻 八首>.

87) 김희동, 앞의 책, 1992, 65면.

88)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V, 민족문화추진회, 1985, 97면.

<신귤(新橘)>

金橘經秋正飽霜
噴人霏霧怯初嘗
懷中數日餘香在
幾度思歸感陸郎

金橘은 가을 지나 실컷 서리 맞았는데,
신 안개 뿜어대니 맛보기가 겁나네.
주머니 속 며칠 두면, 향기가 남았는데,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말아보게 하리라.

憶昨承恩在玉堂
金柑遍賜侍臣嘗
今朝海外逢新採
宛似當時出尚方

지난날 玉堂에서 承恩할 때 생각하니,
金柑을 侍臣들에게 골고루 주셨었네.
오늘아침 海外에서 새로 딴 걸 맛보니,
그 당시 尚方에서 나온 것과 똑같네.⁸⁹⁾

이 시는 10월 22일 日記에 기록되어 있다. 첫째 수에서는 “때가 서리 내린 뒤가 되면 나무마다 옥 같은 잎새가 영롱하고 금빛 열매가 찬란하며 서로 빛을 반사하여 가장 보기 좋은 경치를 이룬다.”⁹⁰⁾라고 한 文部의 내용에서처럼 서리 내린 뒤의 귤이 너무나 찬란하여 받아들고도 먹기조차 아까워하는 모습⁹¹⁾을 볼 수 있다. 그 향기 또한 너무 좋아서 혼자 맡기가 아까운 듯하다. 따라서 주머니 속에 넣어 두었다가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말아보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미루어 한양에서는 귤을 쉽게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귤은 임금께 진상하는 물품 중의 하나로, 청음이 이전에 궁궐에서 봤던 기억을 바탕으로 둘째 수를 지었다. 즉, 둘째 수에서는 금방 딴 감귤을 보면서 작년에 옥당에 있을 때 임금이 내려주신 감귤을 생각하면서 尙房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되던 그것을 직접 보고 맛보게 된 데 대한 감회를 그리고 있다.⁹²⁾

<과원(果園)>

萬竹森森護短牆
橘林無數擁成行
津津綠葉三春雨
的的金丸一夜霜
病客白頭回止渴
佳人玉手摘生香
輕包重裏浮滄海

대나무 뻣뻣하게 짧은 담장 지키고
귤숲은 무수하게 줄지어 안겨 있네
진진한 푸른 잎은 봄비에 젖었다가
금빛으로 둥근 열매 하룻밤 서리맞네
병객과 老人들 갈증을 멈춰주려
미인들 고운손길 딸적에 향기나네
輕包·重裏가 바다에 둥둥 떠서

89) 김희동, 앞의 책, 1992, 201면.
90) 『南槎錄』, 1601년 10월 23일 丁亥, “時當霜降之後, 樹樹玲瓏, 玉葉金實, 燦爛相映, 最爲奇絶.”
91) 변영미, 앞의 논문, 1995, 37면.
92) 성범중, 앞의 논문, 2005, 113면.

十月年年進尙方

시월이면 해마다 尙方으로 進上하네

小橘黃黃大橘紅
夕陽來照透玲瓏
登盤爛似金丸迸
入口甘蜜液於濃
漢苑未堪誇馬乳
蜀櫻爭數滿筠籠
秋江舊說元非誕
洪子清談不負公

작은 귤 누룻누룻 큰 귤은 붉은데,
夕陽이 와 비취니, 속까지 玲瓏하네.
밥상은 번쩍번쩍 금덩이가 구르는 듯
입에 넣으면 꿀물보다 더 다네.
漢苑은 馬乳를 자랑하지 못할게고,
蜀櫻은 數를 다투어 바구니 채우겠네.
秋江의 舊說은 거짓말이 아니었고,
洪子의 清談은 공을 배반 아니 하리⁹³⁾

이 시 역시 제주의 풍물인 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며, 10월 23일 日記에 기록되어 있다. 귤의 종류와 맛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남사록』 文部에 기록되어 있다.⁹⁴⁾ 여기서 귤의 종류로는 金橘, 唐柚子, 倭橘, 柚子, 乳柑, 洞庭橘, 青橘, 山橘, 柑子와 같이 아홉 종으로 앞의 네 종은 큰 귤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작은 귤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귤의 맛과 색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귤의 맛에 한번 놀라고 육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귤이 지천에 있어 항상 쉽게 접할 수 있는 제주에 대해 풍요로움에 다시 한 번 놀라고 있다.

풍요로운 귤뿐만 아니라 제주를 설명함에 있어 “곳곳마다 駿馬로다.(處處驂驪)”⁹⁵⁾라고 할 만큼 목장마다 많은 말들을 사육하고, 鄭以喆가 “馬畜상의 생육되는 것이 晉나라의 屈産과 같아서 여러 고을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馬畜之所孳猶晉之屈産非諸州之所可擬也)”⁹⁶⁾라고 한 것에서 제주 말의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⁹⁷⁾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제주 말에 대해 청음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마둔(馬屯)>

曾聞麗季失茲鄉
輸與元家作牧場
良馬萬群并脚力
橐駝千里送餘糧

曾聞컨대 고려 말에 이 고장을 잃으니,
元나라에 뺏겨서 목장이 되었었네.
좋은 말 萬무리와 힘 좋은 脚夫들과,
낙타를 배에 싣고 千里길 보내왔네.

93) 김희동, 앞의 책, 1992, 207-208면.
94) 위의 책, 204-206면.
95)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1985, 97면.
96) 위의 책, 102면.
97) 변영미, 앞의 논문, 1995, 8면.

只今版籍歸東府
每歲驛驢入御廂
官長向來多濟癘
漸看秋草遍山長

지금은 領土가 우리에게 돌아와서,
해마다 좋은 말이 御廂으로 들어가네.
官長은 줄곧 濟育하는 버릇 많아,
秋草가 山에 가득 자람을 보게 됐네.⁹⁸⁾

이 시는 10월 15일 日記에 기록되어 있는데, 온화한 기온과 한라산 등성이에 풍부한 풀, 맹수가 없어⁹⁹⁾ 넓은 산야에 방목하여 목축하기에 적당하여 馬牧場地로 유명한 제주에서 십이둔개처¹⁰⁰⁾나 되는 마둔과 사육되는 많은 말을 보고 청음은 감탄하고 있다. 또한 고려 말에 잃었던 이 땅을 다시 찾아 제주의 좋은 말을 취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있다.

제주에 본격적으로 말을 기르기 시작한 것은 1276년(충렬왕 2년) 元의 조정에서 말 160필을 가져다가 水山坪에 놓았던 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元나라의 멸망으로 이곳에서 기르던 말들은 고려에 귀속되었다가, 다시 고려가 멸망한 뒤 조선에 그대로 인계되어 군사, 외교, 산업면에서 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주에 馬政의 체계를 갖추었다. 馬政은 세종 16년에 軍馬의 重務임을 강조하며, 馬政에 밝고 재간이 있는 자를 差遺하여 그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였다.¹⁰¹⁾ 이런 말의 중요성은 임진왜란을 겪고 난 후 청음에게 있어 더 절실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 같다.

청음은 육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꿀이 많이 생산되고, 원나라에서 들어온 말이 많이 길러지고 있어, 이런 제주 풍물의 풍요로움에 감탄하고 있다. 또한 청음이 宣讀한 ‘敎書’¹⁰²⁾에서 “좋은 말이 마구간에 들어오고 매번 朝天之使를 따라 감꿀이 공물로 오르니 실로 이는 잘 보호해야 할 보배로다.(龍種入閑, 每隨朝天之使, 木奴登貢, 實是包甌之珍)”라고 이야기하면서 꿀과 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꿀과 말의 풍요로움에 감탄만 하기 보다는 진상되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충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던 듯하다.

이런 진상의 폐해를 살펴보자면, 『남사록』 文部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98) 김희동, 앞의 책, 1992, 175면.

99) 이상순, 앞의 논문, 2005, 15면.

100) 國馬가 十二둔개처인데 吾召浦(동쪽 二十리), 挾財浦(동쪽 三十리), 未等浦(동쪽 十五리), 川尾浦(남쪽 十리), 與溫浦(남쪽 十리), 所个老浦(남쪽 十五리), 兎山浦(서남쪽 十五리), 代浦(서쪽 十七리), 又尾浦(서쪽 三十리), 狐村浦(서쪽 三十리), 甫涯木浦(서쪽 四十二리), 西歸浦(서쪽 六十리), 法還浦(서쪽 六十七리)이다. (김희동, 앞의 책, 1992, 168면. 참조)

101) 이상순, 앞의 논문, 2005, 15면.

102) 『南槎錄』, 1601년 9월 22일 丙辰..

進貢하는 수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많은데 結實이 잘 안됐을 때에는 매년 七八월에 牧使軍官이 村家를 순시하며 橘柚가 있는 곳에서 붓으로 하나하나 짐을 찍어 장부에 기록하고 가을이 되어 곶이 익는 날에 장부와 대조하여 收納한다. 바람과 비에 손상을 입었든가 까마귀나 참새가 쪼아 먹은 것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그 나머지를 내놓아 보이라고 하고 그렇게 못할 때에는 장부에 적힌 대로 바치도록 한다.¹⁰³⁾

三邑의 守令이 모두 그 관할지역 안의 벼슬아치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말을 장부에 올려서 혹은 戰馬라고 부르며 혹은 應求라고 하면서 공공연히 억지고 빼앗는데, 前例가 그렇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사람이 이와 같이 하니 후임자도 이를 본받는다.¹⁰⁴⁾

앞에서 곶의 진상 과정에서의 폐해¹⁰⁵⁾를, 뒤에서 말의 진상 과정에서의 폐해를 다루고 있다. 우선 곶의 진상과정에서의 폐해를 살펴보자면,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지만 진상하는 수도 그만큼 많으며, 매년 기후와 관계없이 장부에 찍힌 대로 진상을 하라고 하니 백성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民家에서는 橘柚를 보기를 毒藥과 같이 보고, 栽培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나무가 있는 자는 잘라버려서 官家에서 문책하는 걱정을 없애려는 자가 많다고 한다.¹⁰⁶⁾ 다음으로 말의 진상과정에서의 폐해를 살펴보면, “말의 진상은 공식적으로 年例 貢馬 2백 필과 3년마다 하는 式年 貢馬 3백 필을 합하여 5백 필을

103) 『南槎錄』, 1601년 10월 23일 丁亥, “進貢之數, 如此其廣大而或所結實數不足之時, 每歲七八月, 牧使軍官, 巡視村家, 有橘柚處, 而筆箇箇傍點, 而記簿, 至秋橘柚熟之日, 按簿考納, 或被風雨所損, 烏雀所殘, 則徵其餘於家主, 如不得應徵, 依簿隨之.”

104) 『南槎錄』, 1601년 11월 18일 壬子, “三邑守令, 皆籍其境內品官百姓有馬者, 或稱戰馬, 或稱應求, 公然抑取, 指爲前例, 往者如是, 來者效之.”

105) 『南槎錄』, 1601년 10월 23일 丁亥 참조.
 <濟州柑橘類進貢數>

區分	本州	掌苑署所納		大靜	旌義	計
		歲前	歲後			
柚子	960	280		180	175	1,577
柑子	29,470	500	500	530	525	31,525
金橘	1,420	1,000		500	500	3,420
乳橘	2,800	700		400	390	4,290
洞庭橘	3,040	2,000		750	740	6,530
山橘	540		500			1,040
青橘	530	2,000		50	750	3,330
塘柚	結實에 따라					
計	38,760	4,480	1,000	2,410	3,080	51,730

106) 이상순, 앞의 논문, 2005, 16면.

바쳤다. 이외에 교역을 위해 징발하는 公馬가 있었고, 正朝·誕口·冬至 때마다 20 필씩 진상하는 60필이 있었으며, 또 삼 읍 수령이 바꿀 때마다 바치는 3필이 있었다.”¹⁰⁷⁾고 하는데, 삼 읍 수령에게 바치는 3필 이외에 공공연히 역지로 빼앗는 경우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관리들의 횡포는 계속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제주도민의 고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고충을 바탕으로 청음은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民知畏吏不知親
自視千金未敢珍

백성은 관리를 꺼리고 친할 줄 모르는데,
千금을 가지고도 보배로 보지 않네.¹⁰⁸⁾

제주 백성들은 외지에서 온 관리들과 친숙한 관계를 맺지 못한 듯하며, 청음이 千金으로 보고 있는 제주의 풍물인 굴, 말 등을 보배로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진상물로 인해 고생을 겪는 제주민의 모습을 본 청음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청음은 이국적 풍물을 감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국적 풍물 이면에 가려진 백성들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북헌 김춘택¹⁰⁹⁾의 『수해록』¹¹⁰⁾처럼 백성들의 고충을 시로써 자세히 형상화하지 않고 「자문폐막」이라는 편명을 제시하고 그 속에 진상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전달함이며, 고발적인 의도를 엿볼 수 있다.

文部의 사실·고발적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시를 통해 안무어사로서 백성들을 걱정하는 청음의 면모를 알 수 있다.

2.2.2. 이색적 풍속

제주 풍물의 풍요로움에 감탄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먼저 생각한 청음이지만, 풍속에 대해서 “이는 대개 남쪽 오랑캐 풍속이 아직 다 고쳐지지 않은 것이다. (此盖蠻風之未盡變者)”¹¹¹⁾ 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청음이 힘든 도해를 마치고 처음 접한 제주의 언어는 정말 특이하게 느껴진 듯

107) 김봉옥, 『제주통사』, 세림, 2001, 94면.

108) 「明倫觀德」, <補千羅歌敬次佔畢齊韻>.

109) 金春澤(1670~1717) 본관 광산. 자 伯雨. 호 北軒. 시호 忠文. 조선 후기의 문신. 1701년(숙종 27) 巫蠱의 옥사로 부안에 유배되고, 1706년 세자를 모해한다는 무고로 죄가 가중되어 제주에 옮겨졌다.

110) 북헌이 제주 조친관에 도착한 1706년 9월 29일부터 1710년 7월 23일 별도포를 떠나기까지의 제주에서 5년동안 적거하면서 지은 詩 114題 210首, 文 29篇을 묶어 『수해록』이라 칭하였다.

111) 『南槎錄』, 1601년 9월 22일 丙辰.

하다. “처음 사람의 말소리를 들으니 썩이 우는 소리와 같아 알아들을 수가 없다.”¹¹²⁾라고 이야기 하는데, 청음에게 있어 낯선 지방인 제주를 더욱 낯설게 여기게 하고 있다.

청음은 낯선 지방인 제주의 모습이 새롭고 특이하게만 느껴졌는데, 그런 시각이 아래의 시에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一邦時候由來別	이곳의 기후는 예부터 유별나서,
春熱冬溫夏亦涼	春熱하고 冬溫하고 여름은 서늘하네.
十月北風常卷屋	시월달 北風에는 지붕이 날아가며,
民家處處土爲堂	民家は 어디서나 흙으로 만들었네. ¹¹³⁾

이 시는 제주의 기후와 이런 기후로 인해 나타나는 생활환경의 일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제주의 기후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봄에는 덥고 겨울에 따뜻하며 여름은 서늘한 날씨인데, 『남사록』 文部에서 “날씨가 고르지 못하다.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썰렁하다.”¹¹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가을 겨울이 되면 하늘이 개는데 또한 폭풍이 많고 눈이 한길에 넘게 나린다. 山의 북쪽이 더욱 심하다.(제주는 섬의 북쪽에 있다)”¹¹⁵⁾와 같이 바람이 많고 심한데 이로 인해 지붕이 걷히는 폐해가 있다고 한다. 이에 민가는 곳곳마다 흙으로 지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가옥구조에 대해서는 『남사록』 文部를 참고하면 더욱 자세하다.

성안의 人家는 모두 때로 덮었고 기와집은 아주 적다. 冲庵錄에 사람이 모두 때로 지붕을 이우고 산다. 엮지 않고 그대로 깔고 쌓는다. 지붕 위에 긴 나무를 가로놓는다.(가을 겨울 사이에 거센 바람이 불어 말려 일어나는 걱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마을 家屋의 제도는 品貫이라고 부르는 자 외에는 溫垓이 없다.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돌을 채워 막고 그 위에 흙을 발라서 구들처럼 생긴 모양이 마르면 그 위에서 잠도 자고 居處한다고 한다. 고을 사람에게 물으니 如前하다고 한다.¹¹⁶⁾

지붕 위에 긴 나무를 가로 놓고 있어 가을 겨울 사이에 거센 바람이 불어 말려

112) 『南槎錄』, 1601년 9월 22일 丙辰, “初聞人語, 如啞舌啞啞, 不可辨也.”

113) 『明倫觀德』, <補千羅歌敬次佔畢齊韻>.

114) 『候風』, “風氣不調, 冬溫夏冷, 每歲春夏.”

115) 『候風』, “至秋冬開霽, 又多暴風, 雪深丈餘, 山北尤甚.(濟州在島北)”

116) 『南槎錄』, 1601년 10월 23일 丁亥, “城中人家皆覆以茅茨, 瓦屋絕少, 冲庵錄, 人居皆茅茨, 不編鋪積, 屋上以長木橫之(以禦秋冬間颯風卷起之患)村屋之制, 號爲品貫者外, 無溫垓, 掘地爲坎, 填之以石其上, 以土泥之, 如垓狀既乾, 寢處其上云. 問之州人猶夫前也.”

날아가는 것을 대비하고 있다. 이런 인가의 풍습은 충암의 『제주풍토록』과 청음의 『남사록』, 북헌의 『수해록』 등에 언급되고 있다. 각기 다른 시대의 문헌에서 이와 같은 제주의 풍습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계속 유지되었으며, 제주를 방문하는 이에게 특이한 풍습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품관이라고 부르는 자 외에는 온돌이 없어, 온돌 대신으로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돌을 채워 막고 그 위에 흙을 발라 생활했다. 흙이 마르면 그 위에서 잠도 자고 거쳐하고 있었다. 이렇듯 제주의 기후로 인해 독특한 가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낯선 것에 대해 청음은 특이하게 여기고 있다.

二月南園解籜龍
舟人停棹罷占風
燃燈過節都無事
燕社家家酒滿筒

二月 南園에서 죽순을 따내는데,
벧사람 돛을 멈춰 占風도 안 한다네.
燃燈節 지낼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잔치하는 집집마다 술이 통에 가득하네.¹¹⁷⁾

여기서는 제주의 풍속인 2월 燃燈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서 “2월 초 하루날 歸德와 金寧 등지에서 나무 장대 열둘을 세워 신을 맞아 제사 지내거나, 봄, 가을로 남녀가 廣壤堂, 遮歸堂에 무리로 모여 술과 고기를 갖추어 신에게 제사 지내기도 하였는데(二月朔日歸德金寧等地立木竿十二迎神祭之, 春秋男女羣聚廣壤堂遮歸堂具酒肉祭神)”¹¹⁸⁾ 등과 같은 기록에도 남겨져 있다.

청음 역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영등신’은 바람을 일으키는 신으로, 영등할머니가 천계에 살고 있다가 딸 또는 며느리를 데리고 2월 1일에 지상에 내려와서 20일에 다시 올라간다고¹¹⁹⁾ 한다.¹²⁰⁾ 이런 燃燈節의 풍습은 『남사록』 文部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17) 「明倫觀德」, <補毛羅歌敬次佔畢齊韻>.

118)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96면.

119) 영등할머니는 영남 또는 해안지방에서 섬기는 풍신(風神)이다. ‘2월할만네’·‘영등할망’이라고도 한다. 음력 2월 초하룻날 제주도에 들어와 바닷가를 돌면서 해녀 채취물의 씨를 뿌려 풍요를 주고 어업과 농업에까지 도움을 준 다음, 2월 25일에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내방신(來訪神)이다. 이 신이 찾아오는 2월을 제주에서는 ‘영등달’이라 부르는데, 이만큼 영등할망은 2월의 내방신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여러 마을에서는 이 신을 위하여 영등굿을 벌인다. 영등할망은 외눈박이섬에서 찾아온다 하기도 하고 강남천 자국에서 들어온다 하기도 하며, 제주도에 와서 바닷가를 돌면서 보말(고동의 일종)을 까먹으며 다닌다 하여 2월달에 보말 속이 비는 것은 이 신이 찾아온 증거라 한다. 또 2월에 날씨가 추우면 옷 좋은 영등할망이 왔다 하고, 비가 오면 우장 쓴 영등할망이 왔다고 한다. 그리고 영등할망이 나가기 전에는 배를 타고 나가서는 안 되며 빨래를 해서도 안 된다. 만일 빨래를 하여 풀을 먹이면 집에 구더기가 인다는 전승이 있다. 이 신은 남한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영등신과 동류의 것으로 보인다. 그 명칭은 지역에 따라 영등할만네·영등할맘·영등할마니·영등할마시·영등바람·풍신할만네·영등마고할마니 등 다양한데, 이 신은 2월 1일에 내려오며, 딸을 데리고 오면 바람이 불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비가 온다고 전승된다. 그리고 거의 풍신(風神)으로 관념되고 있으며 농업·어업에 관련된 신으로 개인의 신앙대상이 되어 있다. 이에 비하면 제주도의 영등할망은 주로 어업의 수호신으로 촌락적 신앙대상이 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영등할머니’ 항목 참조)

매년 정월 그믐 때 바람이 西海로부터 불어오면 他方之神이 오셨다고 하면서, 여러 무당을 모아 野祀를 지내는데 밤낮을 이어 村家에 드나듭니다.二月 상순이 되면 또 돛대를 갖춘 배 모양을 만들어 포구에 띄우면서 말하기를 「送神」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바람이 동북쪽에서 불어오면 他方之神이 가셨다고 합니다.¹²¹⁾

“二月 初吉부터 보름 뒤까지는 절대로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오직 진상하는 배는 관가의 독촉하는 명령을 받기 때문에 民俗의 禁忌에 불구하고합니다마는 그러나 가끔 파선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¹²²⁾라는 제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청음은 상식적인 이치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상식적인 이치로 말씀드리다면 정월 二월은 바람이 고르지 않은 때이고 四방의 바람이 모두 종일 부는 일이 없고 불었다 그쳤다 합니다. 三冬(삼동=시월·동짓달·선달)에 비해서, 비록 이때가 봄이 된 뒤라 하더라도 바다 가운데의 바람 날씨는 더욱 사납고 거칠어 모든 항해하는 사람들은 이달에는 쉽게 배를 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¹²³⁾

제주민에 있어 바다는 삶과 직결되는 공간이기에 이와 같은 燃燈節의 풍속을 당연시여기고, 二月 初吉부터 보름 뒤까지는 절대로 배를 띄우지 않는 금기사항을 지키려 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금기사항을 어겼을 때 생겼던 사고에 대해 연등절과 같은 풍속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그러나 성리학적 지식을 갖춘 청음에게 있어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풍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아래의 시에서도 느낄 수 있다.

木石時時生怪變
叢祠處處逐年多
遐氓未慣先王法

木石이 때로는 怪變을 일으키니,
여기저기 祠堂들이 해마다 많아지네.
遠方の 백성들이 先王의 법을 몰라,

120) 『南槎錄』, 1601년 11월 27일 庚申, “每年正月晦時, 有風自西海來, 則謂之他方之神來矣, 聚群巫, 作野祀, 以夜繼晝, 出入村家, 至二月上旬, 又造舟形, 具帆檣汎之于浦口, 謂之送神, 是時風自東北來, 則謂之他方之神去矣.”

121) 『南槎錄』, 1601년 11월 27일 庚申, “然雖以常理言之, 正月二月, 當風氣不調之時, 四方之風, 皆無終日之勢, 乍作乍止, 比諸三冬, 雖是開春之後, 海中風日, 尤爲狂厲, 凡過海之人, 不可於此月, 輕易放船云.”

122) 『南槎錄』, 1601년 11월 27일 庚申, “自二月初吉, 至于望後, 絕不放船., 惟進上之船, 被官家督令, 不拘俗忌, 然往往致敗者多”

123) 『南槎錄』, 1601년 11월 27일 庚申, “然雖以常理言之, 正月二月, 當風氣不調之時, 四方之風, 皆無終日之勢, 乍作乍止, 比諸三冬, 雖是開春之後, 海中風日, 尤爲狂厲, 凡過海之人, 不可於此月, 輕易放船云.”

여기서는 제주에 무속이 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국여지승람에서 “풍속이 음사¹²⁵⁾를 숭상하여 산·숲이나 내·못이나 높은 언덕이나 낮은 언덕이나 나무 돌에 모두 신의 제사를 베푼다.(淫祀乃於山藪川池丘陵墳衍木石俱設神祀)”¹²⁶⁾와 같은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에 무속이 흥했던 이유는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야 했던 제주민들이 자연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간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이를 통해 재앙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당과 제사가 곳곳마다 성행하고 민심이 이에 몰려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²⁷⁾

이런 제주민들의 모습은 외지인의 눈에는 아주 기이하면서 야만스럽게 비쳐져 “풍속이 별나고 군사는 사납고 백성은 어리석다.(風殊俗別卒悍民獠)”¹²⁸⁾, “풍속이 야만이고 거리가 멀다.(俗囂地遠)”¹²⁹⁾ “민속이 비루하고 바보스럽고 야비하다.(氓俗鄙而癡野)”¹³⁰⁾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청음역시 “이는 대개 남쪽 오랑캐 풍속이 아직 다 고쳐지지 않은 것이다.(此蓋蠻風之未盡變者)”¹³¹⁾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눈으로 무속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청음의 부정적인 시각은 『제주풍토록』처럼 “잡귀승배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 등과 같이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제주민의 삶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2.3. 객회와 향수

왕명을 받아 海外로 떠나면서 쓴 글들은 대부분 부모와 벗들과 이별하는 슬픔을 절실하게 표현하면서도 처음 밟아보는 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보통이다. 공적인 일정 속에서 그들이 느낄 수 있었던 괴로움이나 외로움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느껴지는 향수를 달래기 위해, 그들은 정치가로서 학자로서의 직분도 잊은 듯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시를 지어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124) 『明倫觀德』, <補壬羅歌敬次佔畢齊韻>.

125) 무당들이 만들어 놓은 사당을 의미함.

126)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96면.

127) 변영미, 앞의 논문, 1995, 32면.

128)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96면.

129) 위의 책, 97면.

130) 『風物』, <충암 수정사 중수기>.

131) 『南槎錄』, 1601년 9월 22일 丙辰..

청음 역시 “억지로 詩를 써서 고민 덜려 할 것 없네.(不須排悶強題詩)”¹³²⁾라고 이야기하듯이 그가 시를 쓴다는 것은 고민을 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시라는 것은 자신의 심회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인간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음의 이번 제주 여행은 “대개 육지의 사람은 비록 바닷가에 사는 자로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로 가는 자라도, 濟州에 가는 것을 죽는 땅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두 기피하고자 하는데”¹³³⁾ 라고 이야기 하는 것처럼 바다를 통한 여행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주로 가기 전 해남에서 순풍을 기다리면서 “일찍이 王宮에서 文案보는 臣이런데, 이제사 鯨波에 候風하는 사람일세.(搜詩不用消肝腎, 文字從來只誤身)”¹³⁴⁾라고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였다.

청음은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면서도 안무어사로서 사명감도 커서, “잘 드는 칼로 큰 바닷물을 베고 싶은데(快劍欲斷滄溟水)”¹³⁵⁾라고 하며 자신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는 청음이지만 제주까지 가야하는 머나먼 일정 때문에 제주 도착 전까지 근심이 이는 것은 사실이다.

<과천도중(果川道中)>

遲遲行邁日西斜	가는 길 더디구나 해는 西쪽 기우는데,
官路驚風滿面沙	큰 길 거친 바람 滿面에 모래로다.
從此南程便萬里	이제부터 南쪽 길 萬리나 되는데,
不堪回首望京華	돌이켜 나도 모르게 서울 쪽 바라보네. ¹³⁶⁾

이 시는 8월 13일 日記에 해당하는 시로, 서울을 떠난 이튿날 과천을 향해 가는 길에 지은 것이다. 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까지 가야하는 머나먼 일정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³⁷⁾ 왕명으로 떠나는 길이지만 머나먼 일정 때문에 자신이 살던 고향과 임금이 계신 서울 쪽을 자꾸만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조정을 하직하고 육로를 지나면서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는 청음의 감정은 자신의 종형인 公州牧使 休庵 金尙窩께 지어 올린 시 <奉呈主牧休庵大

132) 「朝天館」, <阻風戲成俳優體五絶>.

133) 『南槎錄』, 1601년 9월 22일 丙辰, “大槩 陸地之人, 雖在沿海者, 除非自己興利之事, 則視往濟州, 如入死地, 皆欲謀避.”

134) 「候風」, <館頭睡起 二首>.

135) 「候風」, <客夜書懷效吳體>.

136) 김희동, 앞의 책, 1992, 21면.

137) 성범중, 앞의 논문, 2005, 109면.

哥>138)에서도 나타난다. 앞날에 대해 어떤 기약을 할 수 없고, 이별을 다시 생각하니 아득한 마음이라며 떠나는 이별의 아쉬움을 말하고 있다.¹³⁹⁾

이렇게 이별의 아쉬움으로 이는 가족의 그리움과 왕사 사이에서 청음은 잠시 갈등을 하는 모습이 <礪山道中>¹⁴⁰⁾에서 보인다. 자꾸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기는 하지만 왕명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으니, 부지런히 왕사를 해나가야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다.

또한 제주로 가는 도중 강진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별주를 나누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내용도 있는데, 아래의 시와 같다.

<취석구점(醉席口占)>

天涯邂逅時	하늘땅 끝에서 만난 이 때는,
佳節重陽日	시절도 좋을시고 九月九日 重陽節. ¹⁴¹⁾
莫起故鄉心	고향 갈 마음일랑 일으키지 말아라,
令人生白髮	사람으로 하여금 흰머리가 나게 하니.

南登漢拏山	南으로 한라산을 올라가 서서,
東望扶桑日	東으로 바다에서 해 뜨는 걸 바라보자.
玉女待吾歸	玉女는 내가 돌아옴을 기다리며,
披雲梳綠髮	구름을 헤치고 검은 머리 빗질하리. ¹⁴²⁾

138) 暫稅郵亭駕 柳聞燕寢香 羈懷俱寂寞 旅餐各蒼浪 風雨秋容晚 雲霞海路長 前期不可卜 離思更茫茫
 잠시 郵亭에서 가는 길 멈추고서 燕寢의 향기를 맡고자 하옵니다. 나그네의 회포는 한가지로 적막하고, 제각기 객지고생 수염 또한 거칠군요. 바람 불고 비 오는 늦가을 경치인데, 구름처럼 안개처럼 海路가 멀고멀어 앞날의 기약은 점도 칠 수 없거니와, 이별할 생각하니 다시 망망하옵니다.

139) 『南槎錄』, 1601년 8월 19일 甲申, “前期不可卜, 離思更茫茫.”

140) 客路西風日夜吹 濶邊秋意菊先知 行人轉覺形骸倦 物色全催歲序移 地遠歸心懸北極 天高遐矚際南維 男兒壯節須勤苦 不向王程怨別離
 客路에 西쪽바람 밤낮없이 부는데, 시냇가 가을 뜻을 菊花가 먼저 아네. 나그네는 더욱 몸이 지쳐 옴을 깨닫는데, 風景은 온통 철 바꿈을 재촉하네. 멀리 떠나 歸心은 北極에 걸렸는데, 하늘 높이 멀리 보니 南維에 닿았구나. 男兒 壯節이 勤苦를 해야 하니, 王程을 아니 가고 離別을 원망하라.

141) 음력 9월 9일을 이르는 말. 重九라고도 한다. 9는 원래 陽數이기 때문에 양수가 겹쳤다는 뜻으로 중양이라 한다. 중양절은 제비가 江南으로 간다고 전하며, 이때쯤 되면 제비를 볼 수 없다. 이날은 柚子를 잘게 썰어 석류알, 잣과 함께 꿀물에 타서 마시는데 이것을 ‘花菜’라 하며 時食으로 조상에 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또 이날 서울의 선비들은 교외로 나가서 楓菊놀이를 하는데, 시인·묵객들은 주식을 마련하여 黃菊을 술잔에 띄워 마시며 시를 읊거나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즐겼다. 각 가정에서는 ‘菊花煎’을 부쳐 먹는데 3월 3일에 진달래로 화전을 만드는 것과 같다. (『두산세계대백과』, ‘중양절’ 항목 참조)

142) 『候風』, <醉席口占 三首>.

이 시는 9월 9일 日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관리와 친구들이 찾아와 고을의 경치가 좋은 곳에 자리를 마련하여 가을 경치와 곁들여 작별을 하고 있다.¹⁴³⁾

첫째 수에서 이렇게 좋은 가을 경치를 보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흰머리가 나게 하는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을 잠시라도 잊어보고자 하고 있다. 또한 둘째 수에서는 새로운 세계, 즉 제주에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떠나는 슬픔, 즉 왕명으로 인해 임금, 가족 등과 이별하는 슬픔을 잊어보고자 하고 있다.

이렇듯 언제까지나 이별에 대해 아쉬워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 길이 왕명을 받아 떠나는 길이지만, 돌아와 보명해야 하는 기약이 있었던 만큼 이런 심정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아래의 시와 같이 태인 양진당에서 잠시 앉아 쉬면서, 석별의 정보다는 바쁜 왕사를 생각하게 되었다.

<태인양진당(泰仁養眞堂)>

亂山環合拱軒楹
一面郊原眺望平
松老故因迎客偃
荷殘猶復向人傾
清憐密竹森森好
閑愛孤雲細細輕
坐久却忘前路遠
暫時聊慰客邊情

王事忽忽不暫停
馬前笳鼓又催行
歸時約與園亭宿
更償今來未了情

亂山은 둘러서서 추녀 끝에 와 닿을 듯,
쳐진 너른 들관 바라보니 平闊하다
老松은 손님 맞아 절하기에 등이 굽고,
늦게 남아 핀 蓮꽃, 사람 向해 고개 숙이네.
清雅한 대나무는 무성하게 자라 있고
한가롭고 외로운 구름은 가벼이 떠있구나.
갈 길이 먼 것도 잊고 한참을 앉았으니,
잠시나마 나그네의 情懷를 위로하네.

王事가 忽忽하니 잠시인들 멈출 소나,
馬前의 笳鼓소리 또한 갈길 재촉하네.
돌아갈 때 園亭에서 자고가길 기약하니
그때나 오늘 못다 한 情懷를 풀어볼까.¹⁴⁴⁾

이 시는 8월 24일 日記에 기록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亂山·郊原·松老·荷殘·密竹·孤雲이 모두 정답고, 청음이 가는 나그네 길을 위로해주는 듯 느낀 시정이 그대로 가슴에 와 닿는 듯하다. 그러나 公務로 먼 길을 가는 터에 마냥 詩情만을 펼 수는 없었다. 따라서 칠언율시에 이어 바쁘게 칠언절구를 읊어 바쁜 왕사

143) 이상순, 앞의 논문, 2005, 55면.

144) 김희동, 앞의 책, 1992, 24면.

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왕명을 받아 떠나는 길로서 돌아와 보명해야 하는 기약이 있었던 만큼 이런 客懷 또한 공무를 끝내고 난 이후로 미루고 있다.¹⁴⁵⁾ 이렇게 나그네의 客懷보다는 “왕사에 감히 어이 천리 길을 멀다 하리?(王事敢論千里遠)”¹⁴⁶⁾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청음이 왕사에 대해 깊은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명감이 깃든 이번 안무어사로서의 이 길을 <客夜書懷效吳體>¹⁴⁷⁾라는 시에서 “드는 칼로 큰 바닷물을 베고 싶은데(快劍欲斷滄溟水)”라고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 남들이 가기를 꺼리는 제주로 가게 된 것에 대한 불평보다는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태도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청음의 관료로서의 책임감 있는 면모를 볼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은 해남에서 순풍을 기다리면서 더욱 자세히 나타난다.

<차노두주흥운(次老杜秋興韻)>

地盡南垠到海頭
離家幾月又經秋
行裝點檢終年計
詩句消磨竟日愁
鄉信未能憑塞雁
飄程聊欲問沙鷗
朝晴試望滄溟外
雲氣依微是濟州

땅이 다한 南쪽 언덕 海頭에 이르니,
집 떠나 몇 달이고 또 한 가을 보내누나.
行裝을 점검하여 해를 넘길 작정하며,
詩句로 날 보내며 하루 종일 근심 짓네.
고향편지 기러기에 부치지도 못하고,
떠도는 길이라서 갈매기에 묻노라.
아침은 맑아서 바다 밖을 바라보니,
구름기운 희미한 저것이 濟州라네.

.....

疎懶何心萬里功
醞鷄長守甕天中
承恩幸際千年會
破浪遙乘九月風
眼界微茫天漢白
詩腸吐納海雲紅

게으르고 어떻게 萬里功을 생각하랴,
醞鷄는 오래도록 甕天中에 있었구나.
은혜를 반자 옴은 千年만의 幸運이라,
물결을 헤치며 九月風을 멀리 타네.
眼界는 망망하고 銀河水는 하얀데,
詩心을 吐納하니 바다구름 붉도다.

145) 위의 책, 25면.

146) 「候風」, <次老杜秋興韻 八首>.

147) 客舍孤衾夢屢驚 客舍의 외로운 밤은 꿈에 자꾸 놀라는데,
荒村處處聞鷄鳴 荒村은 여기저기 닭소리 듣는구나.
鄉關北去道路黑 鄉關은 北으로 가고 道路는 검은데
河漢西流星斗明 銀河는 西流하고 北斗星은 밝고나.
快劍欲斷滄溟水 드는 칼은 滄溟水를 버히고자 하라마는,
何時更歸白玉京 어느 때사 다시금 白玉京엘 돌아갈고.
嚴程獨出一千里 嚴程은 홀로서 一千里를 나왔는데,
惆悵無人歌渭城 슬프도다 渭城을 노래할 이 없음이여.

歸來細撰南行錄
異事傳誇百歲翁

돌아가 南行錄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이상한 일 자랑하며 百歲翁이 되리라.¹⁴⁸⁾

이 시는 9월 19일 日記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주로 떠나기에 앞서 관두 촌사에 묵으면서 당시의 심정과 주위의 경치, 그리고 제주의 풍물을 상상하며 지은 것이다. 바다 밖 희미하게 보이는 제주에 순풍이 불지 않아 오랫동안 떠나지 못한 데 대한 근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근심을 앞으로의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면서 해소하고 있다.

여기서 “돌아가 南行錄을 상세하게 기록하여(歸來細撰南行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제주 목민관으로 가는 자신이 바쁜 정사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외지인의 눈에 비친 제주의 절경과 섬사람들의 생활과 습속, 풍물 등을 시나 문을 통해 자세히 기록하겠다는 포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근심보다는 자신의 포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이렇게 포부를 통해 자신감을 내세우는 청음도 “억지로 詩를 써서 고민 덜려 할 것 없네.(不須排憫強題詩)”¹⁴⁹⁾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시를 써서 제주 기행 중에 겪게 되는 고통과 외로움을 달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동과도해시운(次東坡渡海詩韻)>

鞍馬驅馳已飽更
更從三老候陰晴
今朝始見北風起
千里遙看南海清
舟楫未經斜鼠鳥
波濤忽作怒鯨聲
陽侯颶母眞多劇
應試曜仙了死生

말 타고 실컷 이리저리 달렸는데
뱃사람 따라서 날씨를 알아보네.
오늘아침 비로소 北風이 일어난다,
千里앞 바라보니 南海가 푸르구나.
배들이 사서도를 지나기도 미처 전에,
과도가 일어나고 怒한 고래 소리치네.
陽侯님 颶母님 너무나도 심하구려,
曜仙은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¹⁵⁰⁾

이 시는 日記에 기록되어 있는데, 소동파¹⁵¹⁾가 바다를 건넌 때의 심정을 자신과 비슷하게 여겨 소동파의 시 중에서 <六月二十日夜渡海>¹⁵²⁾를 次韻하여 쓴

148) 김희동, 앞의 책, 1992, 34-37면.

149) 「朝天館」, <阻風戲成俳優體五絶>.

150) 김희동, 앞의 책, 1992, 50면.

151) 蘇東坡(1036.12.19~1101.7.28). 자 子瞻, 호 東坡居士, 愛稱 坡公·坡仙, 이름 軾. 蘇洵의 아들이며 蘇轍의 형으로 大蘇라고도 불리었다. 송나라 제1의 시인이며, 문장에 있어서도 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이다.

152) 參橫斗轉欲三更, 苦雨終風也解晴. 雲散月明誰點綴, 天容海色本澄清. 空餘魯叟乘桴意, 粗識軒轅奏樂聲. 九死南荒吾不恨, 茲游奇絕冠平生.

것이다.

뱃사람을 따라 날씨를 알아보다가 드디어 북풍이 불어 도해하였지만 심한 파도로 인하여 고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해 후 건너온 바닷길을 보며 “되돌아 온 해로를 보니 큰 물결이 산과 같아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과 뼈를 오싹하게 한다.”¹⁵³⁾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닷길이 참으로 고생스러웠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무시무시한 바닷길의 위력을 『남사록』 文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략 未時(오후 三시)에 都近川(제주 서쪽 十五里에 있다)에 정박하려 했으나 조수가 이미 물러갔고 바람이 또 몹시 불어 한 모서리를 돌아 지나서 겨우 涯月 방호소 성 아래로 들어갔다. 동행한 배 한척이 따라 왔다. 그 나머지 여덟 척은 어디로 떨어졌는지 알 수 없다.¹⁵⁴⁾

이렇게 힘들게 도착한 제주에서의 생활은 때때로 외로움에 사무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났던 것 같다. 이런 그리움은 <曉起>¹⁵⁵⁾란 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밤새 외로운 꿈, 蒼海를 輕視하여, 千里 집에 돌아감에 待風도 아니했네. (夜來孤夢輕滄海, 千里還家不待風)”와 같이 꿈에 거친 바다를 쉽게 건너, 머나먼 고향에 돌아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청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왕사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현실적 고통을 꿈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객지에서 생활하면서 더욱더 간절해졌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연북정차이금오여척운(戀北亭次李金吾汝惕韻)>

天涯無日不回頭	하늘 끝 回頭하지 않는 날이 없는데,
一日思鄉抵九秋	하루 고향 생각함은 九秋와도 맞먹어.
醉裡欲忘歸路濶	취하여 돌아갈 길 잊으려 하라마는,
夢中猶覺此身浮	꿈속에 이 내 몸이 浮空함을 깨닫네.
空吟崔顥烟波句	헛되이 崔顥의 烟波句를 읊조리니,

153) 『南槎錄』, 1601년 9월 22일 丙辰, “回望所歷海路, 大浪如山, 令人不覺心骨俱寒.”

154) 『南槎錄』, 1601년 9월 22일 丙辰, “約未末, 將泊都近川,(在濟州西十五里) 汐勢已退, 風又驅出, 仍轉過一隅, 僅入涯月防護所城下. 同行船一隻追至, 其餘八隻不知下落.”

155) 白蠟籠紗照壁紅 白蠟 籠紗가 벽을 비취 붉은데,
愁人曉起錦屏空 愁人은 새벽 일어나고 비단 병풍 비었네.
夜來孤夢輕滄海 밤새 외로운 꿈, 蒼海를 輕視하여
千里還家不待風 千里 집에 돌아감에 待風도 아니했네.

誰幻陳卿竹葉舟
漫說向來輕遠別
高亭今夕自生愁

누구라 陳卿의 竹葉舟를 만들었나.
遠別을 별것 아니라고 늘 말해 왔으나,
今夕 高亭에서 愁心만 이는구나.¹⁵⁶⁾

이 시는 10월 12일 日記에 기록되어 있는데, 단 하루도 고향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꿈에서도 고향에 대한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음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나그네로서의 정회가 느껴진다. 이런 내용을 수·함련을 통해 나타내고 있으며, 경련에서는 崔顥¹⁵⁷⁾가 읊은 黃鶴樓詩¹⁵⁸⁾ 가운데 “해 저무는데 내 고향은 어디메뇨, 연기 강 위에 서려 사람을 시름에 잠기게 하네.(日暮鄉關何處是, 煙波江上使人愁)”라는 구절로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고, 陳卿이 異人을 만나 대나무 앞으로 만든 배¹⁵⁹⁾를 타고 집에 돌아간 일로 자신의 처지와 심경을 반영하고 있다. 미련은 그동안 멀리 떠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고향에 대해 그리워하고 있어 수심만 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통해 청음의 쓸쓸함이 느껴진다. 이런 쓸쓸함은 한해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절정을 이루고 있다.

<제석(除夕)>

舊歲餘今日

지난해는 다 가고 오늘 하루 남았는데,

156) 김희동, 앞의 책, 1992, 155면.

157)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호 성당.

158) 昔人已乘黃鶴去 옛 선인은 이미 황학을 타고 가버리고
此地空餘黃鶴樓 이 땅에는 텅 빈 황학루만 남아 있네
黃鶴一去不復返 황학은 한번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白雲千載空悠悠 흰 구름만 천년을 허공에 유유히 떠 있네
晴川歷歷漢陽樹 맑은 날 강물에 한양의 나무들이 역력히 비치고
芳草萋萋鸚鵡洲 향기로운 풀 앵무주에 무성하네
日暮鄉關何處是 해 저무는데 내 고향은 어디메뇨
煙波江上使人愁 연기 강 위에 서려 사람을 시름에 잠기게 하네

159) 竹葉舟는 대나무 앞으로 만든 배인데, 다음과 같은 고사에서 생겨난 말이다.

陳季卿은 江南 사람인데 진사시험에 응시하러 長安에 가 있으면서 10년 동안 돌아가지 못하였다. 하루는 靑龍寺로 스님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火閣에서 쉬고 있었는데, 마침 終南山에서 온 늙은이도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뒤에, 벽 사이에 <寶瀛圖>가 있기에 계경은 강남으로 가는 길을 찾다 보다가 탄식하기를, “여기에서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룬 게 없어도 후회하지 않으려만.” 하니 늙은이가 말하기를, “그건 쉬운 일이다.”라고 하고 일어나더니 섬돌 앞의 竹葉을 따서 (그림 속의) 渭水 속에 위치시키더니 “여기를 주목하면 바라는 대로 될 것이요.” 하였다. 계경이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매우 큰 배 한 척을 보고 명한 상태에서 배를 타니 그것이 매우 빠르게 움직여서 열흘 남짓 만에 집에 이르렀다. 다시 배를 타고 또 청룡사에 가서 중남산에서 온 늙은이가 아직도 배웃을 감싸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계경이 말하기를 “꿈이 아닙니까?”라고 하였다. 뒷날 처자가 강남에서 와서 말하기를 “아무 날에 돌아와서 서쪽 집에다 시를 지었습지요.” 하니, 비로소 꿈이 아닌 줄 알게 되었다고 한다.(陳季卿 江南人 舉進士 長安十年不歸 一日於靑龍 訪僧不值 憇於火閣 有終南山翁亦俟僧 久之 壁間有寶瀛圖 季卿尋江南路 嘆曰得自此歸 不悔無成 翁曰此易耳 起折塔前竹葉 置渭水中 曰注目於此 則如願 季卿熟視 見一舟甚大 恍然登舟 其去甚速 旬餘至家 更復登舟 再遊靑龍寺 見山翁尚擁褐而坐 季卿曰 非夢乎 後妻子自江南來 曰某日歸 題詩於西齋 始知非夢 韓詩 共泛瀟湘一葉舟, 『異聞錄』, <竹葉舟>)

他鄉獨此身
 遠遊輕節序
 多痛苦吟呻
 天上黃金闕
 堂中白髮親
 歸心一倍切
 回首欲沾巾

낮선 타향에 이 몸 홀로 외로워,
 멀리 떠도는 몸, 명절도 무시되고,
 아픈데 많아서 괴롭게 신음하네.
 하늘 위에는 황금 대궐 계시고,
 집안엔 백발이신 아버지가 계시니
 돌아갈 마음을 한층 더 간절하고
 머리 돌리니 눈물 수건 적시네.¹⁶⁰⁾

이 시는 12월 30일 日記에 실려 있는데, 12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회를 쓰고 있다. 낮선 타향에서 지내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데 몸까지 아픈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임금과 부모가 계신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아직까지 왕사가 끝나지 않아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눈물만 흘리고 있다. 이는 객지에서 느끼는 흥과 효를 더욱 절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멀리서 생각나는 대궐과 늙으신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극에 달한 듯하다. 이렇게 걱정이 이는데 반해, 시간은 자꾸 가고 있어, 여전히 타지에 있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처량하게 느껴진 듯하다.

이렇게 제주 생활에 있어 객수와 향수에 젖어있던 청음이지만 왕사가 모두 끝이 나고 이제 돌아갈 일만 남았을 때는 제주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며 자신의 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조천관잡영(朝天館雜詠)>

遠出因王事
 玆行實壯遊
 遐觀狹海若
 決起笑蝸鳩
 自詫難爲水
 何論不辨牛
 南溟萬里外
 從此在吾眸

임금님 일로 하여 멀리 출장 나와,
 이번 길에 정말로 구경을 잘하였네.
 무서워 멀리서 보며 海神과 친해지고,
 기세 좋게 일어나 蝸鳩를 비웃었네.
 航海가 어렵더라 자랑을 제 하면서,
 소 탈줄 모르는 일 얘기꺼리 되겠는가.
 남쪽바다 만 리 밖에서 보고 들은 일은,
 이제부터 내 눈에 삼삼히 남아있네.

名記神仙府
 身從仕宦朝
 啣綸星獨出
 挾節海橫超

이름은 神仙의 洞府에 적혔으나,
 몸은 벼슬살이라 朝廷에 딸려 있네.
 綸旨를 입에 물고, 別星(使臣)으로 홀로 나와,
 符節을 끼고서, 바다 가로 타 넘었네.

160) 김희동, 앞의 책, 1992, 229-230면.

拏岩祥雲集
叢祠怪氣消
瀛洲清絕地
留着與逍遙

한라산 봉우리에 祥雲이 모여들고,
숲 속 淫祠에는 怪氣가 사라지네.
瀛洲는 맑고도 경치 좋은 땅이니,
그대로 머물러 살며, 逍遙하면 좋으련만.¹⁶¹⁾

이 시는 1월 13일 日記에 기록되어 있는데, 청음이 안무어사라는 왕명을 받고 제주에 와서 바쁜 일정 중에서 봤던 제주의 자연경관, 풍물, 풍속 등에 대해 회상하고 있다.

청음에게 있어 이번 여행은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첫 여행이라 객지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외로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게 밀려왔지만 제주 여행의 경험은 청음에게 있어 의미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주 여행에 대한 흔적은 후에 저술한 『조천록』, 『청평록』 등과 같은 문집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¹⁶²⁾

161) 위의 책, 234-238면.

162) 성범중, 앞의 논문, 2005, 113-114면.

IV. 『남사록』의 문학적 특성과 문학사적 의의

1. 『남사록』의 문학적 특성

『남사록』은 ‘일기체 기행문’이라는 산문양식을 통해 6개월에 걸친 노정을 기록하고 견문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한편, 한시라는 운문양식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산문에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기존 자료를 인용하여 사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청음 자신의 견문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자료는 청음보다 먼저 제주를 기행하고 지은 『남명소승』, 『지지』, 『충암록』, 『표해록』 등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의 언어, 풍습과 기후, 지형, 특산물 등을 기술하면서 청음은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에 맞게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冲庵의 水精寺重修記에 이곳 耽羅國은 바다 가운데 있어, 뱃길이 아득하게 멀고 풍랑과 도적을 만날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人士는 모두 北쪽으로 遊學하는 것을 꺼린다고 하였고, 또 『風土記』에는 “品官이하 모두 朝廷의 權貴한 사람과 교제를 맺는다. 누구나 부처에게 축원하며, 그 세력 있는 豪族은 鎮撫가 되기를 바란다. 원주민의 屋主때부터 내려온 氣風이 그러한데, 다음으로는 旅首이고, 다음은 書員·知印·貢生이다. 각각 이익을 찾는 것을 일삼는데 실오리 같은 작은 일에도 모두 뇌물을 주고 받는다”고 하였는데 내가 보기로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¹⁶³⁾

『표해록』에 이르기를 “맑은 날 한라산절정에 올라 西南쪽千里 밖을 바라보면 一帶의 白沙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곧 白海다” 하였는데 내가 본 바로는 눈에 차는 것이 모두 銀빛을 이루어 어느 곳이 白海가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¹⁶⁴⁾

『小乘』에서는 山위의 돌을 물에 가라앉게 하면 떠오른다고 하였는데 내가 가지고 시험해 보니 거짓말이었다.¹⁶⁵⁾

163) 『南槎錄』, 1601년 9월 22일 丙辰, “冲庵水精寺重修記, 有耽羅國, 於海中, 舟道夙遠, 有風濤寇剽之患, 土之人士, 卒憚於遊學北方. 又風土記, 品官以下, 皆交結朝貴, 無人無願佛者, 其豪右求爲鎮撫, 土人自屋主以來, 流風已然, 次者旅首, 次者書員, 知印貢生, 各以漁利爲事, 毫縷細故, 皆有贈賂, 余見, 今則不然.”

164) 『南槎錄』, 1601년 9월 25일 己未, “漂海錄云, 晴日登漢拏絕頂, 望西南千里外, 有如一帶白沙者, 卽白海也. 余之所見, 滿目皆成銀界, 不知何處爲白海也.”

이처럼 기존자료를 인용함으로써 『남사록』은 제주도와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충실히 기술하여 제주의 인문 지리적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이는 청음이 안무어사라는 직무를 띠고 기행하게 된 제주의 당시 정황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식을 간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음은 이 책에서 사실적이며 구체적인 서술을 통해 특수한 지역·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백성들을 안무하기 위해 청음이 이번 기행을 하게 된 바, 민정을 살피고 공무시찰을 하면서 파악한 제주의 부조리 등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어 고발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 지역의 부조리한 부분에 관한 내용은 『남사록』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18일 日記로 제주의 弊瘼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특히 그렇다. 그는 제주사회의 폐막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범주화하였다. 첫째로 ‘封送馬之弊’을 들고 있다. 이는 三邑 守丞들이 경내의 품관이나 민가에 良馬가 있으며 기록해 두었다가 戰馬니 貢馬니 하는 명목으로 함부로 징발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로 민가의 소를 置簿하여 두었다가 수령들의 遊宴用으로 마구 추살하는 ‘生物價之弊’를 들고 있다. 셋째로는 군관의 무리들이 空手로 치부하기 위하여 매사에 뇌물을 요구하여 狂悖한 행동으로 村民을 괴롭히는 ‘營軍官之弊’, 넷째로 官에서 사냥한 노루의 뼈를 제주의 進上商人에게 억지로 떠맡기어 그 대가로 필륙 등 물품을 사서 바치게 하는 ‘京貿易之弊’, 다섯째로 京來點馬官이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點馬時에 동원하여 失農케 하는 ‘京點馬之弊’¹⁶⁶⁾를 들고 있다.

이것은 이전 제주 기행록에서는 찾기 힘든 내용으로 공물의 종류별·지역별 수량, 관리들의 횡포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청음은 제주의 부조리한 정황을 자세히 기술하면서 이에 대해 한탄하는 내용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내가 三邑의 牛簿를 모두 거두어 불태우고 守丞에게 公文을 移牒하여 과거의 폐습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이 禁止令은 내가 섬에 있을 때의 이야기지 뒤에 오는 자가 누가 옳게 여겨 받들어 行하겠는가. 木紙는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몹시 마음 아픈 노릇이다.¹⁶⁷⁾

165) 『南槎錄』, 1601년 9월 25일 己未, “小乘, 山上石, 沈水則浮出云. 余取試之, 卽誕也.”

166) 임홍선, 앞의 논문, 1994, 53면.

167) 『南槎錄』, 1601년 9월 22일 丙辰, “余盡收三邑牛簿焚之, 移文守令, 毋踵前習. 然此禁止, 余在島時也. 後來者, 誰肯奉行, 蒙塵木紙乎, 甚可痛心.”

해외에서 어디다 호소할 곳도 없는 백성들이 그러한呑噬와 剝割을 받는 것이 이렇게 極度에 달하였는데도 아는 사람이 없다. 비록 더러 좌천돼 와 있으면서 듣고 보고 하여도 뇌물이나 써서 일을 잘 처리하는 자는 죄를 얻는 일이 없다.

운통 한 심을 武人들의 출세하는 땅이 되게 하여, 결국 못하는 것이 없게 되었으니, 끝내는 禍亂의 온상이 된 것도 이상하게 여길 것이 못된다.¹⁶⁸⁾

이렇게 통분과 한탄을 금치 못하는 청음은 『남사록』을 통해 제주민의 고통과 실상을 알리고자 제주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조리한 정황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가림주구로 인해 백성들이 결국 유리 방랑하게 되는 체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백성들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자각을 통한 지식인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산문양식을 통해 기록적이며 사회고발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남사록』은 기행기록 사이에 직접 한시를 짓거나 타인의 시를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록적 측면에서의 사실성과 한시의 리듬감을 동시에 맛보게 하고 있다.

즉, 기행기록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측면에 한시의 주관성을 결합시켜 기존 제주의 기록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물론 산문양식을 통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으나 청음의 제주기행에 대한 감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운문양식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청음이 본 제주의 자연경관과 이국적인 풍물·풍속, 제주 기행을 통해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시로써 드러내고 있다.

청음의 이번 제주 기행은 자신의 삶에 있어 색다른 경험으로 그가 접하는 모든 제주의 산물과 곳곳의 풍경은 시의 제재가 되었다. 이러한 제주 생활의 체험은 제재 선택의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시에 사용된 소재 역시 다양해졌다. 또한 제주 곳곳의 풍경을 읊으면서 선계와 신선의 이미지 등을 자주 등장시키고 있어 소재와 제재의 확대를 가져오는데 기여하고 있다.

청음의 한시에서는 정지된 하나의 장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한 폭의 그림을 담아내듯이 묘사하고 있다. 이는 제주를 기행하지 못한 이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듯 그려내고 있어, 당대 시풍인 당시풍¹⁶⁹⁾의 맥을 잇고 있다.¹⁷⁰⁾

168) 『南槎錄』, 1601년 11월 18일 壬子, “海外無告之民, 受其呑噬剝割, 至此之極, 而莫有知者, 雖或播在聞見, 而夤緣善事者, 未嘗獲罪, 付與一島爲武夫發身之地, 窮無所不至, 而卒釀禍亂者無足恠也.”

169) 박병익의 논문에서는 당시의 특징으로 성정문을 작시의 근본으로 삼아 평이한 일상 언어를 시어로 구사하고, 시의 음악성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현기교로 의미를 온축하여 독자로 하여금 끝없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 주제는 시대적 삶에서 오는 素懷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현상도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병익, 「16세기 三唐詩人の 唐詩風 研究」, 목포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5, 14면, 참조)

170) 안병학의 논문에서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16·7세기의 시풍을 당시풍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당시풍은 획일적인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며 전개된다고 하고 있다.

『남사록』 소재 한시는 내용상 ‘신비한 자연경관’, ‘이국적인 풍물과 풍속’, ‘객회와 향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여기서 신비한 자연경관을 읊은 한시에서 신선적 요소가 작품 속에서 단순히 소재적 차원, 즉 배경적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계에 대한 몰입과 선계에 대한 동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¹⁾ 이렇게 자연에 동화되어 유유자적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국적인 풍물과 풍속’을 읊으면서 제주민을 바라보는 청음의 시각과 함께 안무어사로서 백성들을 걱정하는 면모도 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또 제주라는 머나먼 땅에 가서 체류하고 돌아오면서 느꼈던 나그네로써의 감정을 시로써 담아내고 있다.

『남사록』은 기행기록을 날짜별로 나열하고 있어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데 사이사이 들어간 한시덕분에 사실나열에서 오는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또한 한시가 주는 정교함과 섬세한 압축성·상징의 미는 느슨해질 수 있는 文部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압축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2. 『남사록』의 문학사적 의의

『남사록』은 청음 김상헌이 안무어사라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를 기행한 글로, 1601년 음력 8월 14일에서 이듬해 2월 14일 복명하기까지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술된 것이다.

제주 기행기록인 『남사록』은 관련된 기존 자료를 인용하여 저술하고 있다. 기존 자료를 인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내가 알아보니’, ‘내가 보기로는’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들어 수정·보완하고 있다. 즉, 기존 자료를 먼저 제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서술하고 있어 이전과 당시 제주의 면모를 비교·고찰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남사록』 이전 제주를 기행하고 저술된 기록으로 최부의 『표해록』, 충암 김정의 『제주풍토록』, 백호 임제의 『남명소승』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표해록』은 1487년 9월 17일 제주 추쇄경차관으로 임명되어 11월에 제주에 갔다가 그 다음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인 나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표류하게 된 기록을 담고 있다. 『제주풍토록』은 1520년 8월에 제주에

(안병학, 「삼당과 시세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88, 15면, 참조)

171) 문복희의 논문에서는 신선시가를 신선계와 현실계, 자아와 대상, 환상성과 현실성 양자 관련 양상에 따라 네 종류로 유형화하고 있다. (1) 신선적 요소가 작품 속에서 素材의 次元에서 援用되어 단순한 배경적 기능을 담당할 경우, 神仙素材詩歌이고 (2) 신선적 요소가 주제로 나타나 神仙界에 대한 憧憬이 두드러질 경우, 神仙憧憬詩歌이고, (3) 神仙계에의 沒入과 선계 동화가 나타나는 경우, 神仙同化詩歌이며 (4) 신선에 대한 강한 否定이나 拒否를 노래하는 경우, 신선부정시이다. (문복희, 「한국 신선시가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5, 37면, 참조)

이배되어 1521년 10월 17일 賜死되기까지의 유배생활을 토대로 제주도의 풍토와 문화일반에 관하여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남명소승』은 1577년 11월 초순 제주목사로 있던 부친 林晉을 만나기 위해 제주로 출발하여 제주 여행길의 여러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이들은 표류·유배·개인적인 여행을 담고 있는데 반해 『남사록』은 안무어사라는 공적인 일정에 따라 견문하여 감동한 사실을 기록한 기행문으로는 최초의 작품이다. 따라서 제주 기행문학의 전개에 큰 획을 그었는데, 이를 첫째로 꼽을 수 있다.

둘째, 공적인 일정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관유기행문학으로 『남사록』은 『남명소승』처럼 중간 중간 그날 지은 시를 부기하여 시와 산문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산문의 딱딱함을 유화시키고 서정적 효과를 아우르도록 하고 있다.¹⁷²⁾

이런 산문과 운문이 결합된 형식적 특징은 동양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유중원의 『永州八記』¹⁷³⁾, 松尾芭蕉의 『오쿠노 호소미치(奥の細道)』¹⁷⁴⁾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산문과 운문의 혼합양식은 혜초의 『왕오천축국전』¹⁷⁵⁾, 이인로의 『청학동』¹⁷⁶⁾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에 『남사록』의 양식적 특징은 중국·일본 등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자, 한국의 오랜 전통적 양식으로, 그 흐름상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남사록』은 이전 제주 기행문과는 다른 독특한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기라는 형식을 채택하여 『남명소승』, 『표해록』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곳곳에 다양한 형식의 글인 교서·제문 등을 담고 있다. 이는 17세기 사행문학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¹⁷⁷⁾이다. 이런 형식을 바탕으로 『남사록』은 제주 관련 기존 자료, 즉 『남명소승』, 『제주풍토록』, 『지지』, 『표해록』등을 인용하여 구

172) 박준호, 앞의 논문, 1995, 316-317면.

173) 永州의 빼어난 경치와 섬세하고 깨끗한 그의 필치와 만나 유명한 山水遊記인 『永州八記』가 지어졌다. 유중원의 遊記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간결하면서 정련한 언어로 자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임현호, 「유중원의 『영주팔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4, 참조)

174) 松尾芭蕉의 3대 기행문(野ざらし紀行, 及の小文, 奥の細道) 중 마지막 기행문으로, 46세 되던 1649년에 제자 曾良와 함께 江戸를 출발하여 동북지방을 돌아서 大垣까지 6,000여리에 달하는 여정을 거의 도보로 여행한 소감을 쓴 俳諧 기행문이다. (강경하, 「「관동별곡」과 『오쿠노 호소미치』의 비교 고찰」, 『일본어문학』 한국일본어학회, 제 13집, 2002, 참조)

175) 이상향인 지리산 청학동을 찾으려 한 李仁老(1152~1220)가 결국 찾지 못하고 바윗돌에 시만 남기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기행 수필.

176) 신라시대의 승려 慧超(704~787)가 727년(성덕왕 26)에 지은 책으로, 고대 인도의 오천축국을 답사한 여행기.

177) 한태문은 17세기 사행문학의 특징으로 ① 각종 사건의 당일 기록 원칙 고수 ② 月·日·干支·날짜·里數 등 使行路程의 的確한 記述 ③ 「견문록」과 「員役 명단附記」 등을 들고 있다. (한태문, 「17세기 통신사 사행문학의 전개와 문학사적 의의」, 『인문논총』 제 57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1, 112면. 참조)

성상의 변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남명소승』은 청음이 공적인 임무 때문에 유람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다.

(南溟小乘) 上峯 따라 남쪽으로 돌아 두타사로 향해서 가면 길이 절구 같이 움푹 파인 곳이 많고 짧은 대나무와 누른 띠가 위에 덮여 있어 말 타고 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十五리쯤 되는 곳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큰 시내가 가로 흐르는데 절은 두 갈래 시내 사이에 있다. 절은 一名 쌍계암이다. 골짜기가 그윽한 것이 또한 하나의 佳境이다. ~ 中略 ~ (나는 죄수를 조사하러 돌아가기가 바빠 가볼 수 없으니 유감이다)¹⁷⁸⁾

또한 『제주풍토록』·『지지』는 제주의 지리적 위치, 기후, 역사, 풍속, 특산물 등의 서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다.

(風土錄) ○ 지독하게 귀신에 대한 제사를 숭상한다. 또 말하기를 남자무당이 대단히 많다.¹⁷⁹⁾

(地誌) ○ 淫祠(무당들이 만들어 놓은 사당)를 숭상한다.¹⁸⁰⁾

둘 다 풍속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제주풍토록』은 충암 자신의 주관을 개입하여 서술하였고 『지지』는 객관적으로 풍속에 대해 전달만 할 뿐이다.

따라서 『남사록』은 『제주풍토록』을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있으며, 『지지』를 인용하여 사실전달에 치중하고 있어 객관성을 더욱 확보하고 있다.

한편 『표해록』은 바다를 건너는 노정과 관련하여 사항에서 인용하고 있다.

漂海錄을 보면 거쳐 온 滄波가 비록 하나의 바다 같지만, 水性이나 水色 이곳에 따라 다르다. 제주의 바다 빛깔은 질게 푸르며 성질이 사납다. 비록 조금 바람이 불어도 물결위에 물결을 겹쳐 태워 사나운 물결이 여기보다 더 심한 곳은 없다. 다른 바다는 풍력이 비록 거셀지라도 물결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하였다.¹⁸¹⁾

178) 『南槎錄』, 1601년 9월 25일 己未, “從上峰南轉, 向頭陀寺, 行逕多凹, 陷如臼, 而短竹黃茅, 覆於其上, 馬行甚艱, 十五里許, 懸崖如削, 崖下大溪橫流, 寺在兩溪之間, 寺之一名雙溪庵, 洞壑幽邃, 亦一佳境也. ~ 中略~ 余因鞫囚忙還, 不得往見, 可恨也.”

179) 『南槎錄』, 1601년 9월 22일 丙辰, “酷崇祀鬼. 又云, 男巫甚多”

180) 『南槎錄』, 1601년 9월 22일 丙辰, “尙淫祠”

이상에서 보듯이 기존자료를 무조건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별 청음의 견해에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기존자료를 인용하거나 이용함으로써 일기 형식이 주는 주관성에서 탈피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런 변형된 형식은 후대 이증의 『남사일록』¹⁸²⁾, 김성구의 『남천록』¹⁸³⁾ 등으로 계승되고 있다.

기타, 『남사록』은 인문지리학에 걸쳐 다양한 방면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제반 학문의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뿐 아니라, 문헌적 가치가 있다. 즉, 『남사록』에 기록된 풍속, 신앙, 토산물의 진현 기록, 방어시설, 육로와 해로의 노정 등은 당시 제주도의 실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 하겠다.

181) 『南槎錄』, 1602년 1월 28일 辛酉, “按漂海錄, 所歷滄波, 雖若一海, 水性水色, 隨處有異, 濟州之海色, 深靑性暴急, 雖少風, 濤上駕濤, 激洩瀛因, 無甚於此, 他海則風力雖勁, 濤不甚高云.”

182) 李增(1628~1686)의 저술로 그가 濟州道 按察兼巡撫御史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1679년 10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의 공무 일정에 따라 견문하여 기록한 것이다. 『남사록』과 마찬가지로 일기 형식이며, 내용의 서술도 날짜를 순차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남사록』과 같은 이전의 기행록을 참고로 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문체의 글을 수용하였으며, 산문 서술과 有機的인 삽입시를 활용하여 『남사록』체재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졌다. (이상순, 앞의 논문, 2005, 85-86면, 참조)

183) 金聲久가 1679(숙종 5년) 6월에 掌書으로 있다가 許穆의 大箭사건에 관련되어 제주도 정의현감으로 좌천되었다. 그 경위와 현감재직 때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1601년 안무어사로서 제주를 다녀온 청음 김상헌이 쓴 『남사록』에 나타나 있는 기행기록을 통해, 그 제작 배경과 경위, 그리고 거기에 실린 한시의 세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남사록』의 문학적 특성과 문학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제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고의 대상이 된 『남사록』은 淸陰 金尙憲이 안무어사로 제주에 파견되어 1601년 음력 8월 14일에서 이듬해 2월 14일 복명하기까지 직접 체험한 사실을 저술한 작품이다. 제주 노정을 바탕으로 청음이 접한 자연경관이나 풍물·풍속 등을 읊고 있는 점에서 기행문학의 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그의 生涯 전반에서 볼 때 최초의 작품으로, 후에 저술한 『조천록』, 『청평록』 등과 같은 문집 곳곳에 제주 여행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 그 가치가 인정된다.

1601년 당시의 국내 정세는 임진왜란으로 혼란스러웠고 제주는 관리들의 횡포가 극심하였다. 민심이 동요된 틈을 타서 蘇德裕·吉雲節 등이 제주도민을 꺾어 반란을 모의하다가 발각되었다. 이에 청음 김상헌이 제주도민의 안무를 위해 어사로 파견되어, 공적인 임무를 염두에 두고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남사록』을 저술하였다.

이렇게 저술된 『남사록』은 안무어사로 파견되어 수행하였던 공적인 임무를 보고하여 임금의 덕화가 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함이며, 제주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후에 제주 기행 시 참고가 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남사록』은 복명 후에 기록된 점을 미루어 내용상 연속성과 순차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주 관련 기존 자료를 인용하여 작품 전체에 객관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일기라는 형식을 내세워 일정에 따라 체험한 사건을 사실적·주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기행문이라는 형식적 특성을 통해 여행의 목적과 동기를 설명하고 노정과 일정을 밝히고 있다.

『남사록』은 산문과 운문의 혼합적 서술양식을 통해 청음의 견문과 감회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산문 곳곳에 삽입된 한시가 청음의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줄뿐더러, 산문의 딱딱함을 유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사록』 소재 한시의 세계를 주제별로 신비한 자연경관, 이국적인 풍물·풍속, 객회와 향수로 분류하여 고찰해보았다.

제주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신선이 사는 곳, 선계의 땅으로 인식하여 찬탄을 하

고 있어 신비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국적인 풍물의 풍요로움에 감탄하면서도 그 이면의 가려진 백성들의 고충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청음은 제주의 색다른 풍속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주의 언어며, 육지와는 다른 섬의 기후적 특성 때문에 나타난 특이한 가옥구조며, 무속 등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성리학적 지식을 갖춘 청음은 연등절과 관련된 제주의 풍속과 뱀·나무 등을 숭배하는 무속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도 청음보다 제주에 먼저 왔던 충암과 달리 제주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무속이 흥했던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았으며, 이는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야 했던 제주민들이 자연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간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이를 통해 재앙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즉 제주민의 순박한 마음에서 찾고 있다.

청음에게 있어 이번 제주 기행은 객지로 가는 첫 여행이자, 바다를 건너야 하는 먼 여정이다. 따라서 왕사를 받들어 가는 길이지만 한양에 계신 임금과 부모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더욱 절실하게 일어나며 자신의 처지 역시 외롭고 쓸쓸하게만 느끼고 있다. 이런 자신의 객회와 향수를 담아 시로써 읊고 있다.

『남사록』의 문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제주라는 특이한 곳의 체험을 ‘일기체 기행문’이라는 산문양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한편, 시라는 운문양식을 통해 청음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산문양식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기존 자료를 인용하여 사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청음 자신의 견문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사실적이며 구체적인 서술을 통해 특수한 지역·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백성들을 안무하기 위해 청음이 이번 기행을 하게 된 바, 민정을 살피고 공무시찰을 하면서 파악한 제주의 부조리 등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어 고발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산문양식을 통해 기록적이며 사회고발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남사록』은 기행기록 사이에 직접 한시를 짓거나 타인의 시를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록적 측면에서의 사실성과 한시의 리듬감을 동시에 맞보게 하고 있다.

청음의 이번 제주 기행은 자신의 삶에 있어 색다른 경험으로 그가 접하는 모든 제주의 산물과 곳곳의 풍경은 시의 제재가 되었으며, 제주 곳곳의 풍경을 읊으면서 선계와 신선의 이미지 등을 자주 등장시키고 있어 소재와 제재의 확대를 가져오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시에서는 정지된 하나의 장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아내듯이 묘사하고 있어, 당대 시풍인 당시풍의 맥을 잇고 있다.

『남사록』은 기행기록을 날짜별로 나열하고 있어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데 사이 사이 들어간 한시덕분에 사실나열에서 오는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또한 한시가 주는 정교함과 섬세한 압축성·상징의 미는 느슨해질 수 있는 文部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압축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남사록』의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먼저 안무어사라는 공적인 일정에 따라 견문하여 감동한 사실을 기록한 기행문으로는 최초의 작품으로 제주 기행문학의 전개에 큰 획을 그었다. 둘째, 관유기행문학으로서의 『남사록』은 『남명소승』처럼 중간 중간 그날 지은 시를 부기하여 시와 산문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산문의 딱딱함을 유화시키고 서정적 효과를 아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남사록』의 양식적 특징은 중국·일본 등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자, 한국의 오랜 전통적 양식으로, 그 흐름상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남사록』은 이전 제주 기행문과는 다른 독특한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기라는 형식을 채택하여 『남명소승』, 『표해록』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곳곳에 다양한 형식의 글인 교서·제문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제주 관련 기존 자료, 즉 『남명소승』, 『제주풍토록』, 『지지』, 『표해록』등을 인용하여 구성상의 변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남명소승』은 청음이 공적인 임무 때문에 유람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고 있으며, 『제주풍토록』·『지지』는 제주의 지리적 위치, 기후, 역사, 풍속, 특산물 등의 서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다. 또한 『표해록』은 바다를 건너는 노정과 관련하여 사항에서 인용하고 있다.

그 외에 『남사록』은 인문지리학에 걸쳐 다양한 방면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제반 학문의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뿐 아니라, 문헌적 가치가 있다. 즉, 『남사록』에 기록된 풍속, 신앙, 토산물의 진현 기록, 방어시설, 육로와 해로의 노정 등은 당시 제주도의 실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 하겠다.

<참고 문헌>

1. 자료

-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 1985.
김상헌, 『청음집』, 민족문화추진회, 1988.
——, 『청음선생문집』, 경인문화사, 1987.
김희동, 『(국역)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서귀포시 공보실, 『서귀포시 문헌자료집』, 서귀포시, 1998.
정조, 『(국역)홍재전서』 17권, 민족문화추진회, 1998.

2. 단행본

- 국어국문학회, 『고전산문연구』, 태학사, 1988.
김봉옥, 『제주통사』, 세림, 2001.
민병수, 『한국 한시사』, 태학사, 1996.
소재영, 『여행과 체험의 문학』,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 『조선조 문학의 탐구』, 아세아문화사, 1997.
우락기, 『제주도』, 한국지리연구소, 1980
윤원호, 『근세 일기문의 성격연구』, 국학자료원, 2001.
이가원, 『한국 한문학사』, 보성문화사, 1992.
이병주, 『한국 한문학사』, 반도출판사, 1991.
——, 『한국 한시의 이해』, 민음사, 1991.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장덕순, 『한국 수필문학사』, 박이정출판사, 1995.
전관수, 『한시어사전』, 국학자료원, 2002.
정승모, 『한국의 세시풍속』, 학고재, 2001.
조동일, 『한국 문학 통사』 v.3, 지식산업사, 2005.
최강현, 『한국 기행가사 연구』, 신성출판사, 2000.
——, 『한국 기행문학 작품 연구』, 국학자료원, 1996.
——, 『한국 기행문학 연구』, 일지사, 1982.
최상일, 『한국 인물사』, 태을출판사, 19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CD, 동방미디어, 2003.

3. 연구 논문

- 권인호, 「한국 기행가사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0.
- 강경화, 「관동별곡과 『오쿠노 호소미치』의 비교 고찰」, 『일본어문학』 제 13집, 한국일본어학회, 2002.
- 김경미, 「청음 김상헌 시 연구」, 『연세어문학』 제21집, 연세어문학회, 1988.
- 김상조, 「충암 김정의 『제주풍토록』과 규창 이건의 『제주풍토기』비교 연구」, 『대동한문학』 제13집, 대동한문학회, 2000.
- 김용섭, 「기행가사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0.
- 문복희, 「한국 신선시가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5.
- 박병익, 「16세기 三唐詩人の 唐詩風 研究」, 목포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5.
- 박세한, 「김상헌과 최명길의 철학사상과 역사의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9.
- 박준호, 「제주도와 관련된 기행록 및 유기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제7집, 대동한문학회, 1995.
- 변영미, 「제주 한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5.
- 부수상, 「북헌 김춘택 『수해록』의 일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2.
- 성범중, 「청음 김상헌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제9권, 한국한시학회, 2005.
- 소재영, 「북헌의 『수해록』논고」, 『건국어문학』 제19집,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5.
- , 「임제의 『남명소승』고」, 『어문연구』 제3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75.
- 안병학, 「삼당과 시세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88.
- 양순필, 「이건의 『제주풍토기』소고」, 『어문논집』 제21집, 안암어문학회, 1980.
- , 「충암의 『제주풍토록』소고」, 『어문논집』 제22집, 안암어문학회, 1981.
- 오관석, 「한문기행연구-장한철의 『표해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4.
- 오수창, 「최명길과 김상헌」, 『역사비평』 제1집, 역사문제연구소, 1998.
- 윤경주, 「신석복의 『탐라록』고」, 『성대문학』 제23집,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4.
- , 「청음 김상헌의 “관동별곡 번사”에 대하여」, 『한문학논집』 제12집, 단국한문학회, 1994.
- 윤치부, 「임백호의 『남명소승』고」, 『탐라문화』 제7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8.
- 이상순,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연구」, 충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5.
- 임현호, 「유종원의 『영주팔기』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4.
- 임홍선, 「김상헌의 『남사록』」, 『논문집』 제23집, 제주교육대학교, 1994.

- 장석우, 「한문기행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5.
- 정기철, 「기행가사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6.
- , 「기행가사의 개념과 유형분류」, 『한남어문학』 제21집, 한남대학교국어국문학회, 1996.
- 조명주, 「『설교창집』을 통해 본 청음 김상헌의 시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지두환, 「청음 김상헌의 생애와 사상」, 『한국학논총』 제24권,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1.
- 최강현, 「한국 기행 문학 소고」, 『어문논집』 제19집, 안암어문학회, 1977.
- , 「한국 기행문학 소고Ⅱ」, 『새국어교육』 제31집, 한국국어교육학회, 1980.
- , 「한국 기행문학 연구-주로 조선시대 기행가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 최두식, 「『남사록』소재시의 해양소재연구」, 『석당논총』 제18집,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원, 1992.
- 최병영, 「18세기 기행가사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0.
- 하진규, 「청음 김상헌의 생애와 문학」,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2.
- 한태문, 「17세기 통신사 사행문학의 전개와 문학사적 의의」, 『인문논총』 제 57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1.
- 함은희, 「조선시대 기행가사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9.
- 홍정표, 「충암 김정의 『제주풍토록』 소고」, 『교육제주』 제28집, 제주도교육위원회, 1975.
- 황인건, 「병란 직후 지식인의 시적 대응-청음 김상헌의 『설교집』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6집, 한국시가학회,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Kim Sang-Heon's 『Namsarok(南槎錄)』

Wang, So-Myeong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the circumstance of 『Namsarok』 and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ravel literature. To fulfill above aims, this study examined public position of official and personal emotions as a poet.

To sum up, it is as follows:

The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whole story,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and circumstance of 『Namsarok』 .

The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ravel literature and category of emotion. The thesis analyzed that work from various point of views. To begin with, as a part of it, this study examined how Kim Sang-Heon expressed in literary view the beautiful scenery of Jeju. Next about how he accepted and expressed the speciality and customs of Jeju. And also this essay examined how Kim Sang-Heon reflected in literary expressions his various feelings experienced on his traveling.

In conclusion, on the basis of above all things, this study found the characteristics of travel literature and dealt with the literary meaning of 『Namsarok』 .